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人口成長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宋 成 大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 會 教 育 專 攻

鄭 守 哲

1989年 月

---

# 濟州道 人口成長에 관한 研究

本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 出 者   鄭   守   哲

指導教授   宋   成   大

1989年    月    日

鄭守哲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9年 月 日

主 審 金 恒 元 

副 審 朴 龍 垆 

副 審 宋 成 大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 次

|                             |    |
|-----------------------------|----|
| I. 序 論 .....                | 9  |
| 1. 研究目的 .....               | 9  |
| 2. 研究範圍와 方法 .....           | 10 |
| 3. 研究地域 概觀 .....            | 11 |
| II. 人口增加 趨勢 .....           | 13 |
| 1. 解放以前 .....               | 13 |
| 2. 解放以後 .....               | 16 |
| 가) 經濟開發計劃 以前 .....          | 16 |
| 나) 經濟開發計劃 以後 .....          | 19 |
| III. 市邑面別 人口變化 趨勢 .....     | 20 |
| 1. 市邑面別 人口增加 .....          | 20 |
| 가. 1960年代 .....             | 20 |
| 나. 1970年代 .....             | 26 |
| 다. 1980年代(1980~1985年) ..... | 27 |
| 2. 人口密度의 變化 .....           | 28 |
| IV. 人口動態 .....              | 35 |
| 1. 自然的增加 .....              | 35 |
| 2. 社會的增加 .....              | 37 |
| V. 人口構成 .....               | 41 |
| 1. 性別, 年齡別 人口構成 .....       | 41 |
| 가) 性比의 變化 .....             | 41 |
| 나) 年齡別 人口構成 .....           | 48 |
| 2. 產業別 人口構成 .....           | 50 |
| VI. 要約 및 結論 .....           | 53 |

## I. 序 論

### 1. 研究目的

人口는 國民(nation)이나 民族(race) 등과는 다르며 그 나라 국민일지라도 그 지역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은 인구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人口는 한 사회나 국가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人口現象이란 그 국가 사회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諸 條件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人口는 나라와 사회에 따라 그 구조가 다르고 한 나라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sup>1)</sup> 생기는 人口地理學的 特殊性<sup>2)</sup>을 지니게 된다. 人口現象은 또한 고정불변의 정태적 구조가 아니라, 출생과 이동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부단히 변화하는 人口現象에 시간적 관점인 人口學的인 面을<sup>3)</sup>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人口는 한 사회의 社會構造를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 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그 사회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없다.

濟州道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고, 특수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독자적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육지와는 상이한 사회적 관습과 社會制度를 유지해 왔다. 日帝 時代에 大量海外移出(특히 日本)과 1948년의 4·3사건은 아직까지도 濟州道의 性別·年齡別 人口構造에 반영되고 있으며, 6·25동란시의 군인 및 피난민의 이동, 그리고 1962년부터 1981년에 이르는 第1, 2, 3, 4次 經濟開

1) 李喜演, 「人口地理學」(서울: 法文社, 1987), pp. 16~17.

2) 李昌基,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p. 156.

3) 李喜演, 前掲書, p. 18.

發5個年計劃과 濟州道 全역에 걸친 관광 개발은 濟州道 人口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sup>

따라서 本考에서는 濟州道 人口現象이 全國의 추세와 다른 人口成長 特徵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濟州道가 갖는 自然的, 社會的 特殊性으로 인한 人口地理學的 特徵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의 濟州道 社會研究와 각종 계획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研究範圍와 方法

日本은 韓國을 植民地化한 후 연차별로 常主人口調査를 실시하여 現住戶口統計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는 植民地 人口統計의 성격에 맞춘 것으로 주로 경찰의 戶口 調査를 기초로 한 常住 人口의 통계였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 1920년에 日本에서 제1회 總人口調査가 실시되고 난 후 1925년 우리나라에서도 제1회 簡易센서스를 실시하였으며, 그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모두 5차례에 걸쳐 人口調査를 실시하였다.<sup>5)</sup> 해방후 우리 정부에 의한 인구조사는 1949년부터 실시되었고 그후 1955년,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등 모두 8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국세조사의 내용을 갖는 것은 1955년 이후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가 된다.<sup>6)</sup>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資料를 추출 사용하고, 그리고 기존 문헌의 統計資料를 인용함과 아울러 濟州道 統計年報를 주로 사용하여 濟州道 人口 統計値를 韓國 人口全體 統計値와 比較 함으로서 年度의 흐름에 따른 濟州道 人口 增加 추세와, 人口構造, 人口增加 要因을 분석함과 아울러 濟州道の 地域的 特殊性에 결부시켜 市邑面別 人口增加를 분석하고자 한다.

4) 李昌基, 前掲書, p. 157.

5) 李喜演, 前掲書, p. 39.

6) 濟州市, “人口와 聚落”, 「濟州市 三十年史」, 濟州市廳 文化公보실, 1985, p. 79.

그리고 이 研究에서 전반적인 濟州道 人口增加와 全國 人口增加의 비교는 국세조사 資料와 기존 문헌의 資料 및 濟州道 統計年報 資料를 사용하여 1925年 以後부터 현재까지 研究가 가능했으나 1960年 以前의 濟州道 邑面 地域別 人口 및 人口構成의 資料가 미비하고, 1957年 以前의 人口 出生과 死亡에 관한 資料 및 1969年 以前의 人口 移動 統計 資料가 미비한 관계로 研究가 불가능하여, 그 以後의 統計 資料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사전에 밝혀 두고자 한다.

### 3. 研究 地域 概觀

#### 가) 역사적 배경

濟州道는 原來 九韓의 하나였고, 上古時에는 島夷라 칭하였으며, 그후로 東甌洲, 涉羅, 耽毛羅, 耽羅, 濟州라 칭하였다. 李朝 開國 11年 太宗 2年에 入朝하여 州郡縣制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또 太宗 16년에는 山南 340里에 旌義·大旌 등 두 고을을 만들고 山北을 濟州라 칭하여 牧使를 두고 山南의 旌義, 大靜에는 각각 현감을 두어 分治케 하였다. 1909년에는 旌義·大靜縣을 廢하여 濟州로 合郡하는 同時에 추子面을 全라남도 完道군으로부터 분리시켜 濟州에 編入시켰으며, 日帝에 合併된 후 1915年 濟州는 郡制가 폐지되어 島制로 改編되었고 1931년에는 濟州面이 邑으로 昇格되었으며, 이때 濟州道の 행정구역은 1邑 12面이었다. 1946年 全라남도 管轄하의 島制로 부터의 독립 道制가 실시되어 행정구역은 北濟州郡, 南濟州郡 2郡으로 분할되고, 1邑 12面을 두었다. 1955년에는 濟州邑이 市로 昇格되었다. 1956년에는 西歸·大靜·翰林 등 3個面이 邑으로 昇格됨과 동시에 翰林邑이 西部에 翰京面을 설치 함으로서 道の 행정 구역은 1市, 2郡, 3邑, 10面으로 개편 되었고 1980년에는 涯月, 舊左, 南元, 城山 등 4個面이 邑으로 昇格되었으며, 1981年 西歸邑이 中文面을 흡수하여 西歸浦市로 昇格되어 道の 行政區域은 現在 2市, 2郡, 6邑, 5面이 되었다.<sup>7)</sup>

7) 강상배, “濟州道 人口의 性比 變化에 對한 研究”, 濟州教育大學論文集 제12집, 1981, pp. 54~55.

#### 나) 자연적 인문적 배경

濟州道 증산간 지대에는 산지와 해안의 二重的 經濟와 麗末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해안으로 침입하는 외적에 대한 피해를 모면할 수 있는 安全地域이었다. 또 좋은 은둔지가 되어 조선 시대에 은둔자들의 들어와서 儒敎를 통하여 文化를 보급하였다. 그러므로 1900年代에 이르기까지 많은 人口가 이곳에 집중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社會 經濟의 양상은 달라졌다. 1910年 以後 일제 때에 木浦, 濟州間에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육지와 밀접해지고, 해안 일주 신작로와 南濟州郡과 北濟州郡間의 연락로가 개통되어 오랫동안 수면 상태인 海岸地帶가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더욱 湧泉이 풍부하고 地形이平坦하여 農耕에 유리하고 육지와의 교통이 편리하여 해산물의 판로가 열리어 水産業이 일어났다. 이에따라 海村과 良村(증산가 마을)과의 경제 사정은 역전되었다. 또한 邑面 사무소, 기타 기관을 내륙에서 교통이 편하고 생산이 많은 해안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였다. 이에따라 中山間의 人口는 해안지대로 많이 이동하고 기타 각지로부터 人口가 모여들었다.

오늘날 총인구의 70%는 해안에 집중되어 濟州道の 產業·經濟·文化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신흥 취락이 생기고 濟州, 西歸浦, 翰林, 華瑟浦, 城山浦 등 여러 港口는 都市化 하였다. 1925年頃 까지만 해도 良村이 濟州道에서 제일이라고 했는데, 1930年頃에는 海村도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1935年頃 牛馬의 판로가 열리어 牧畜이 발달됨에 따라 人口移動은 정지되었다. 1948年 山間에 4·3사건이 일어나 사회 불안으로 山間地帶의 人口가 또다시 해안으로 이동하였다. 1953年 以後 안정기를 맞아 山間地域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山間地域의 人口가 점차 늘고 있다.<sup>8)</sup>

8) 姜錫午, 「新韓國地理」(서울: 대학교재출판사, 1985), p. 247.

## II. 人口 增加 趨勢

### 1. 解放 以前

朝鮮時代 濟州道 전체의 人口數는 朝鮮王朝實錄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世宗16年(1434年)에 63,474人에 달하였던 人口가 宣祖 34年(1601年)에는 22,897人으로 급격히 감소 하였다가 그후부터는 서서히 증가 현상을 보여 正祖 15~17年(1791~1793年)에 64,582人, 高宗 13年(1883年)에는 95,131人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濟州道는 450여년 동안 겨우 31,657人이 증가한 셈이다. 동기간에 朝鮮人口는 거의 18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으나 濟州道는 불과 1.5배 정도의 增加率을 보였을 뿐이다. 이같이 濟州道 人口의 증가의 폭이 극심한 것은 기록에 나타난 인구 통계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濟州道는 朝鮮時代 중에 태풍·해풍·한재 등 극심한 재난으로 계속되는 흉작이 많았고, 또 질병의 유행도 심하여 많은 饑病死者가 속출 함으로써 人口의 감소 원인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대재난은 世宗때(1433年) 심한 한재로 많은 사람들의 餓死 한 것을 비롯하여 中宗(1506~1544年) 때의 5회에 걸친 대풍우로 인한 흉년과 질병, 仁祖7年(1625年), 孝宗(1650~1659年), 顯宗(1659~1674年), 肅宗(1675~1720年), 英祖(1725~1776年) 및 正祖(1776~1800年) 때에 대기근과 질병까지 발생하여 사망자가 많아 대참상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正祖 때에는 3년간 계속 흉작이 들자 道民 64,580人중 飢民은 61,400여명에 달하여 餓死者 數도 수천명에 이르러 길바닥에 시신이 즐비 하였다고 한다.<sup>9)</sup>

1923年 濟州道는 209,018人이었던 人口가 2년 지난 1925년에는 204,315人으로 되었는데, 人口增加를 보인 지역은 安德面, 西歸面, 舊左面, 城山面, 추子面에 해당

9) 北濟州郡, “人口와 聚落” 「北濟州郡 三十年史」, 北濟州郡廳 文化公보실, 1986, pp. 65~66.

하는 항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에 대하여 人口 増加를 보였고 그 외에는 감소 형태를 보이며, 人口 2萬 以上에 해당하는 지역은 濟州邑, 涯月面, 翰林面에 한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日政 後半에 와서 人口가 감소한 것은 근세의 濟州道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극한한 것으로 그 원인은 사회적 감소에 있다. 그 이유 첫째는 <表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20年代부터 日本은 자국의 근대 공업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노동자와 근면한 노동자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 시키는데는 濟州人의 최적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출타를 유도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1934年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 거류자 數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1938年을 기점으로 하며 濟州道 가구 1호당 대략 1명이 일본에 거주하였다.<sup>10)</sup> 둘째는 해상 교통이 급격한 발달로 道民의 道外 移出이 많았기 때문이다. 1920年代에 濟州와 부산간 및 목포간에 정기 항로가 개설되었고 1928年頃 부터는 제주와 日本 오오사카 간에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道內 주요 항구에 기항되었다. 이에따라 생계가 곤란한 청장년들이 직업과 돈을 벌기 위하여 日本과 육지로 출가 하였는데, 1938年頃 <表1>에서와 같이 日本에 도항 거주한 濟州人 數는 45,950人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출가한 海女도 1,500人이나 되고 있다.<sup>11)</sup>

<表1> 제주도민 일본 거류자수

(단위 : 人)

| 구분 \ 년도 | 1926   | 1930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1938   |
|---------|--------|--------|--------|--------|--------|--------|--------|--------|
| 거류자수    | 23,584 | 31,786 | 47,271 | 50,045 | 48,368 | 46,463 | 45,943 | 45,950 |

資料 : 제주도, 「생활상태조사(2) : 濟州道」, 1929, p. 22

제주도, 「제주도세 요람」, 1939, pp. 12~17.

10) 濟州市, 前掲書, p. 80.

11) 北濟州郡, 前掲書, p. 66.

〈表2〉 濟州道 人口의 變化

| 구분<br>년도 | 全 國     |               |               | 濟 州 道  |             |              |
|----------|---------|---------------|---------------|--------|-------------|--------------|
|          | 人口(萬人)  | 기간 (%)<br>증가율 | 年平均(%)<br>증가율 | 人口(萬人) | 期間 %<br>증가율 | 年平均 %<br>증가율 |
| 1925     | 1,952.3 | -             | -             | 20.4   | -           | -            |
| 1930     | 2,105.8 | 7.3           | 1.53          | 20.8   | 1.9         | 0.4          |
| 1935     | 2,289.9 | 17.3          | 1.69          | 20.7   | -1.4        | -0.1         |
| 1939     | 2,354.7 | 2.8           | 0.7           | 20.6   | -0.4        | -0.12        |
| 1944     | 2,590.0 | 9.1           | 1.74          | 22.0   | 6.8         | 1.3          |
| 1946     | 1,936.9 | -28.3         | -35.1         | 26.6   | 2.0         | 9.96         |
| 1949     | 2,018.9 | 4.2           | 1.4           | 25.5   | -0.3        | 1.42         |
| 1955     | 2,150.2 | 6.5           | 1.04          | 28.9   | 13.3        | 2.21         |
| 1960     | 2,499.4 | 16.0          | 3.06          | 28.2   | -2.4        | -0.5         |
| 1966     | 2,919.3 | 16.8          | 2.62          | 33.7   | 19.6        | 3.1          |
| 1970     | 3,146.9 | 7.8           | 1.89          | 36.5   | 8.3         | 1.9          |
| 1975     | 3,470.7 | 10.3          | 1.98          | 41.2   | 12.8        | 2.5          |
| 1980     | 3,743.6 | 7.8           | 1.52          | 46.3   | 11.0        | 2.3          |
| 1987     | 4,208.2 | 12.4          | 1.68          | 50.2   | 8.4         | 1.16         |

資料：濟州道 統計年報 各年度(濟州道)(1962, 1967, 1971, 1976, 1981, 1988)

한국통계연감(內務部統計局 1953) 全羅南道編 도세일람(1939, 1940)

간이국세조사결과표(조선총독부, 1925)

註1) 増加率은  $\frac{p_2}{p_1} - 1 \times 100$ 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成長比는 정기적으로 주어진 기간마다 센서스가 시행되었을 경우 국가간 또는 한 국가내의 지역간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측정치이다.

註2) 인구 현상에 관한 자료들의 관찰기간이 상이할 경우 지역간의 인구성장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年平均 増加率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rac{p_2}{p_1} = (1+r)^n$  여기서  $p_1$  : 기준시점  $t_1$ 의 인구수  $p_2$  : 선정된 시점  $t_2$ 의 인구수

$r$  : 연평균 인구성장율  $n$  : 시점  $t_1$ 과  $t_2$  사이의 기간

대수의 계산법에 의하면  $\log \frac{p_2}{p_1} = n \log(1+r)$   $\log(1+r) = \frac{1}{n} \log \frac{p_2}{p_1}$

1939~1944年 동안 제2차대전에 대비하여 日本은 한국내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그 전쟁 수행에 필요한 산업을 강화했다. 이 당시에 濟州道는 日本의 대륙전쟁 수행상 병참적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全國의 年平均增加率(1.74%) 보다는 낮지만 그동안 감소했던 人口가 1.3%의 年平均 人口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表2 참조〉

## 2. 解放 以後

### 가) 經濟開發計劃 以前

濟州道는 1944~1946年 기간 동안 46,871人이 人口增加가 이루어져 이 기간중 20%라는 가장 높은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만주 및 북한으로 부터의 대량의 人口 移入과 日本으로부터 끌려갔던 濟州道民의 귀환에 의한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人口 移入은 당시의 濟州道 社會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귀국후 거의 대부분이 농촌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濟州邑이나 西歸面에 정착하는 경향이 강했다.<sup>12)</sup>

이와같이 8·15 이후 정체가있던 人口 增加는 되살아나 1946年 濟州道 人口는 266,419人으로 이것은 1953年 濟州道 人口 248,801人에 比較하면 총인구수에 있어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原因을 규명해 보면 그간 4·3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다수 있었고, 1950年 6·25동란 당시 무사했던 濟州道는 100% 징집이 가능했던 것으로 그만큼 전사한 인원수도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sup>13)</sup> 그러나 이후부터는 비교적 사회 사정의 안정과 사회 경제의 발전등으로 人口의 자연적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人口增加는 정상적인 상태로 바뀌게 된다.

1955~1960年 사이의 全國의 人口는 전후의 社會的 安定에 따라 南韓 人口가 비로서 封鎖人口의 狀態에 들어서서 出生率의 급격한 上昇으로 年平均 3.06%〈表2참조〉의 높은 人口增加率을 보이는 時期인데 반해서 同期間 濟州道는 오히려 年平均 0.5

12) 李喜演, 前掲書, p. 87.

13) 姜相培, “濟州道内の 人口에 對한 研究”, 「濟州教大論文集」第五輯, 1975. p. 123.

의 人口減少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 時期 濟州道의 이러한 減少의 原因은 대체로 세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1955年 人口調査와 1960年의 人口調査 集計方式의 差異로서 1955年 濟州道 人口에는 당시의 陸軍第一訓練所 將兵들이 모두 包含된 것이었다. 둘째는 休戰 後 피난민들의 귀환과 陸軍第二訓練所의 폐지에 따른 軍人家族의 大量移出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로 陸地部の 復舊事業 때문에 本道の 靑壯年層의 他道로의 流出<sup>14)</sup> 등으로 기인하였다고 하겠다.

#### 나) 經濟開發計劃 以後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第一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이 시작되었고, 또 가족 계획이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60~1966年 全國의 人口 增加率은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1950年代 후반에 비하여서는 크게 둔화되지는 않았다. 이 기간에 濟州道의 人口增加는 약 55,000人이 增加, 年平均 3.1%의 높은 增加率을 나타내어 全國의 年平均 增加率(2.62%)보다 다소 상회하여 增加하였다. 그리고 全國의 人口增加 平均値는 1950年代 末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나, 濟州道는 1950年代 末에 비하여 오히려 크게 上昇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濟州道의 人口가 1950年代에는 육지부 및 日本으로 빠져 나간데 대하여,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濟州道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전출 인구가 감소되고, 전입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出生率에 대해서는 뒤에 論하겠지만, 1960年 以前까지는 全國平均値보다 낮았던 濟州道의 出生率이 1960年을 전후로 해서 현저하게 上昇하기 시작하여 1970年代 초반까지 高出生率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出生率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 기간 동안의 出生率 上昇이 濟州道 人口成長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sup>15)</sup>

1966~1970年의 濟州道 年平均人口增加率 1.9%는 全國年平均 增加率 1.8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60年代 末 2年 계속해서 나타난 湖南 地方의 旱

14) 李昌基, 前掲書, p. 164.

15) 李昌基, 前掲書, p. 165.

魘로 인한 이 地方 人口의 濟州道 移入<sup>16)</sup>과 1960年代의 柑橘栽培에 따른 많은 人口 吸入力을 發生한 데 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서울과 부산에 人口가 급증하는 全國적인 都市化 現象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濟州道는 人口 轉入 地域을 형성하였다.

1972年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 여러가지 농업 정책과 인구 분산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都市化는 계속 진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경지와 농가 인구는 해마다 감소되었고, 반면에 중화학 공업의 발달에 따라 일부 대도시 지역이 고도 성장하면서 1960年代 보다도 더욱 심한 지역별 人口 增減 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남한의 전체 人口는 1970年 3,147萬人에서 1975年 3,471萬人에 달하여 그간 324萬人이 增加되어 年平均 65萬人으로서 1.98%의 年平均 성장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1960年代 후반기의 年平均 增加率 1.89% 보다 0.09% 증가한 셈인데, 그 원인은 6·25사변 이후의 출산붐(Baby Boom)때 출생된 女兒가 可姪年齡 人口로 성장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이 시기에 濟州道는 늦은 Baby Boom으로 女兒가 可姪年齡 人口는 되지 않았지만 年平均 人口 增加率 2.5% <表2참조>로 全國 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70年代 初부터 일기 시작한 새마을 운동으로 감귤 농가 소득이 높아졌다는 것과 국가 소득이 向上되어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이 확대되면서 濟州市 人口의 增加를 가져왔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1975~1980年의 기간 동안에는 全國의 年平均 人口 增加率은 1.52%이지만 濟州道는 이보다 높은 2.3%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에 全國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은 重化學 工業의 推進으로 高度化가 이룩되어 工業國家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對外指向的인 經濟政策으로 수출을 크게 늘렸고, 雇傭機會를 擴大하였으며 自力 成長과 자립경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1977~1981年)은 「成長·能率·衡平」을 增進시키며 技術을 革新하고 能率을 向上시키는 것을

16) 姜相培, “濟州市의 人口에 대한 研究”, 「論文集」, 제7집, 濟州教育大學 1977. p. 7.

17) 上揭書, p. 98.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家族計劃事業의 強力한 推進으로 人口 增加率이 상당히 둔화되었으나<sup>18)</sup> 濟州道는 1975年 觀光綜合開發計劃의 發表에 따라 觀光개발이 확대로 全國値보다 높은 增加率을 가져온 것이다.

1980~1987年 동안 人口의 都市 集中現象은 新興 公營 都市에 편중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농촌 인구의 都市 集中 또는 移村 傾向도는 일련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都市<sup>19)</sup>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가속화되었던 것이다.<sup>20)</sup> 이 기간에 濟州道 年平均 人口 增加率은 <表2>에서 보듯이 全國 年平均 人口 增加率(1.68%)보다도 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60年代 以後 全國 人口 增加率을 상회하던 것이 이 시기에 떨어지게 된 이유는 觀光개발 정책으로 인구흡입 정책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제주도 중심 산업인 1차산업의 농산물 가격 하락과 외국 농산물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2차산업의 부재로 인해 人口 흡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

18) 姜相培, “濟州道の 地域別 人口増減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Ⅱ)”, 「論文集」第14輯, 濟州教育大學, 1984, p. 23.

19) 權赫在, 「韓國地理」(서울: 法文社, 1987), p. 419.

20)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인구 50,000명 이상의 살고 있는 市를 都市라고 정의함.

### Ⅲ. 市邑面別 人口變化 趨勢

#### 1. 市邑面別 人口增減

資料 關係上 1960~1985年 間の 濟州道內 人口를 5年 단위로 해서 市邑面別 人口增減을 살펴보고자 한다. 市邑面別에 따라 人口增減을 구분해 보면 人口成長의 발전지구와 후퇴지구 및 정체지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1960年代

1960~1966年 間에는 그림<1>에서와 같이 濟州道 13個 邑面중 減少 邑面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증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획기적인 건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중 全國年平均値(2.62%)를 상회하는 邑面은 朝天面, 安徳面, 城山面, 南元面, 西歸邑이 되어 濟州道 전체의 38.5%를 차지, 全國 13.6%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增加가 큰 5個 邑面이 分布를 보면 南濟州郡에 4個 邑面, 北濟州郡에 1個 邑面이 分布되어 있다. 특히 西歸浦邑을 中心으로 한 南元面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격증 지역으로 나타난 것은 1960年代初부터 일기 시작한 감귤 재배붐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감귤 재배지로서는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濟州大學 農水産學部の 西歸邑으로의 移轉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생각되며, 심리적으로 南濟州郡에도 市를 만들겠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北濟州郡에서 유일하게 격증한 朝天面은 濟州市에 인접하여 다른 기간은 減少 내지 微增 地域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다소 격증한 요인을 분석하기에는 資料의 미비로 원인 규명이 어렵게 느껴진다. 단지 한가지 들 수 있는 것은 4·3사건시 피해가 컸던 朝天面에 이 기간중에 출타했던 人口가 복귀한 것이 아니니가 하는 점이다.<sup>21)</sup>

21) 姜相培, “濟州道の 地域別 人口增減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Ⅱ)”, 前掲書, pp. 18~19.

〈表3〉 濟州道 市邑面別 年平均 人口增加率

(단위 : %)

| 기 간<br>지 역 | <sup>1)</sup> 1960<br>~1966年 | 1970<br>~1975年 | 1970<br>~1975年 | 1975<br>~1980年 | 1980<br>~1985年      |
|------------|------------------------------|----------------|----------------|----------------|---------------------|
| 全 國        | <sup>2)</sup> 2.62           | 1.89           | 1.98           | 1.52           | 1.17                |
| 濟 州 道      | 3.1                          | 1.9            | 2.5            | 2.3            | 1.12                |
| 北 濟 州 郡    | 1.9                          | -0.5           | 0.2            | 1.0            | -1.39               |
| 翰 林        | 1.9                          | 0.2            | 3.3            | 2.3            | -1.3                |
| 涯 月        | 0.3                          | -1.6           | 1.0            | 0.8            | -1.2                |
| 翰 京        | 0.3                          | -3.5           | 3.9            | 1.0            | -1.6                |
| 朝 天        | 3.9                          | -0.7           | 1.3            | 1.3            | -1.1                |
| 舊 左        | 1.5                          | -1.3           | 0.4            | -0.2           | -5.9                |
| 南 濟 州 郡    | 3.4                          | 2.2            | 2.2            | 1.6            | <sup>3)</sup> -1.37 |
| 西 歸        | 6.8                          | 5.9            | 4.6            | 1.9            | 1.4                 |
| 大 靜        | 1.1                          | 0.5            | 1.9            | 1.0            | -0.26               |
| 安 德        | 2.8                          | -4.5           | -0.2           | 0.9            | -2.7                |
| 中 文        | 0.3                          | 0.7            | 1.6            | 1.7            | -                   |
| 南 元        | 3.9                          | 2.2            | 2.7            | 1.6            | -2.5                |
| 表 善        | 1.1                          | 0.3            | 1.7            | 1.2            | -1.2                |
| 城 山        | 4.2                          | 0              | 1.2            | 1.4            | -0.5                |
| 濟 州 市      | 4.4                          | 8.0            | 4.9            | 4.4            | 3.9                 |

資料 : 濟州道統計年報 1967, 1971, 1976, 1981, 1986.

註1) 1960年 센서스 이후 5년뒤인 1965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人口센서스는 예산사  
정으로 인해 1966年 10月 1日 ○時를 기해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3  
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常住居住者 전부를 조사하였다.

$$\text{註2)} \quad \frac{P_2}{P_1} = (1+r)^n$$

여기서  $P_1$  : 기준시점  $t_1$ 의 인구수

$P_2$  : 선정된 시점  $t_2$ 의 인구수

$r$  : 연평균 인구성장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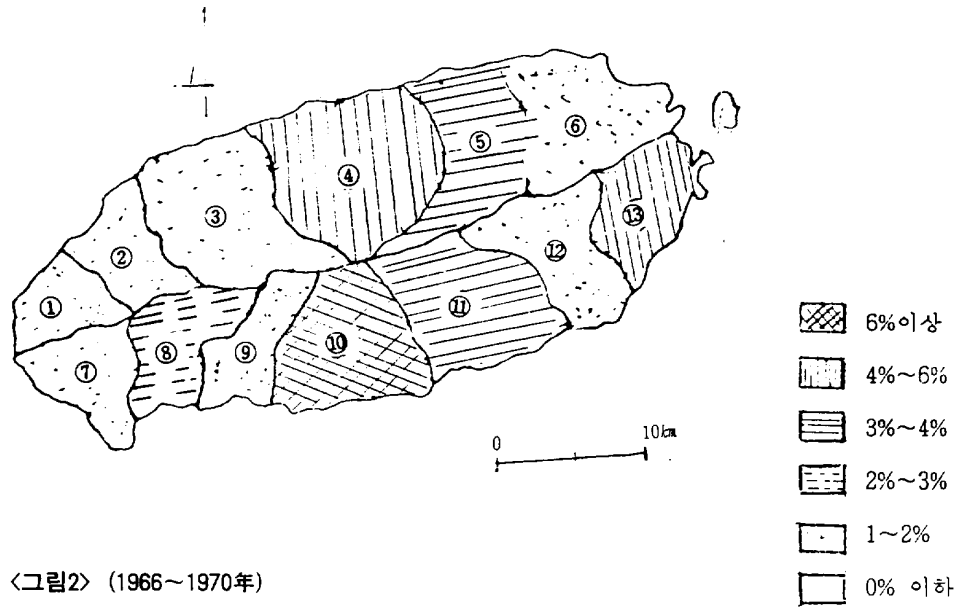
$n$  : 시점  $t_1$ 과  $t_2$  사이의 기간

대수의 계산법에 의하면  $\log \frac{P_2}{P_1} = n \log(1+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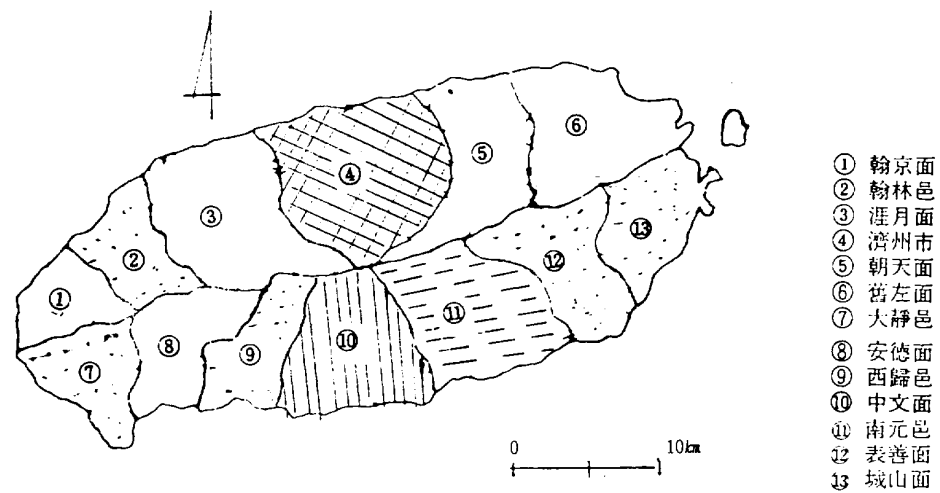
$$\log(1+r) = \frac{1}{n} \log \frac{P_2}{P_1}$$

註3) 1981年 7月 1日 西歸邑과 中文面을 統合 西歸浦市가 新設 昇格되어 12個洞으로  
개편함으로써 道の 행정구역을 2市 2郡 6邑 5面 29個洞으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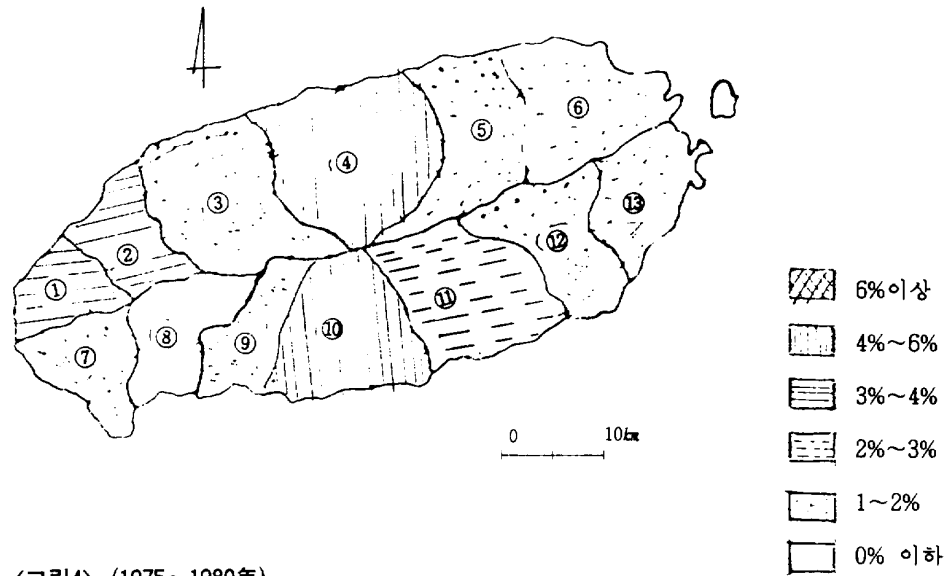
<그림1> (1960~196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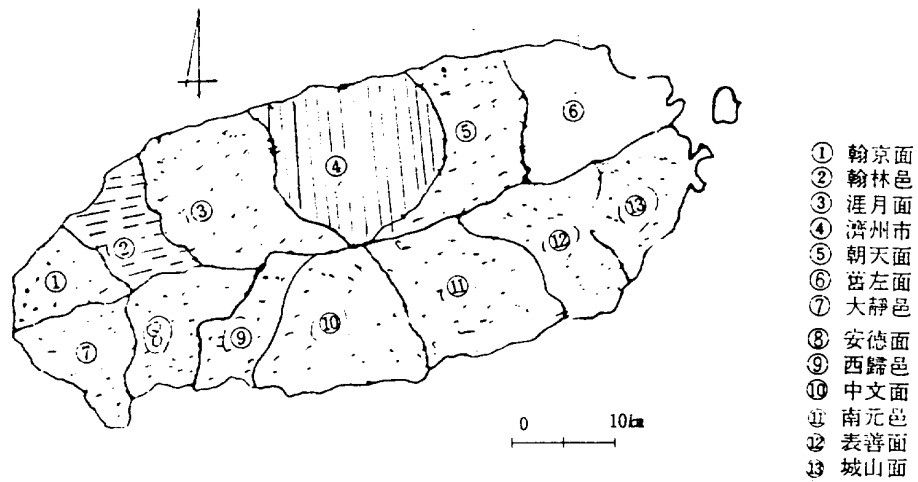
<그림2> (1966~197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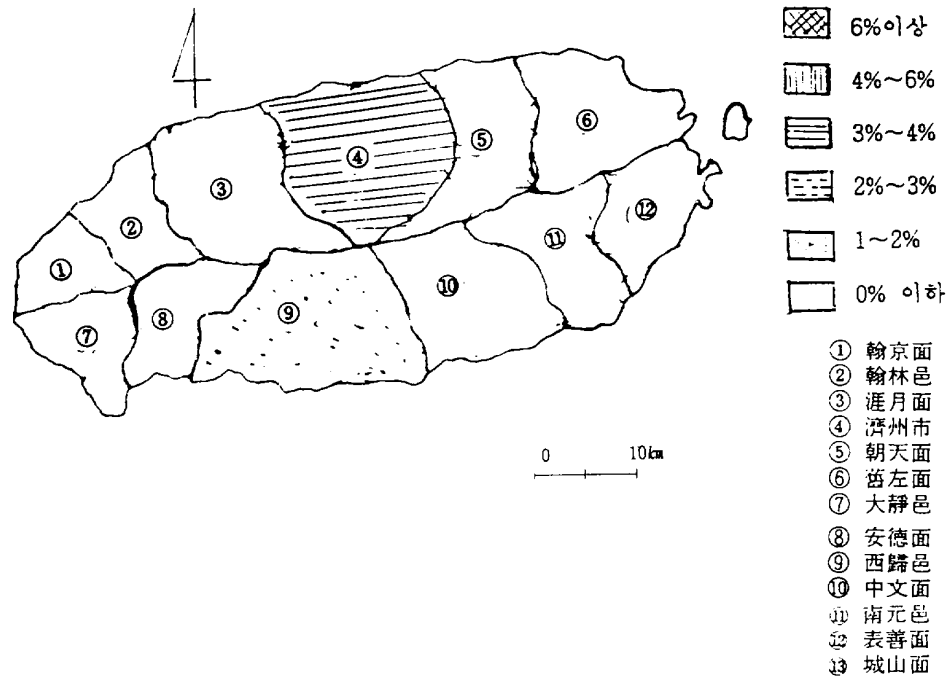
〈그림3〉 (1970~1975年)



〈그림4〉 (1975~1980年)



〈그림5〉 (1980~1985年)



그리고 南濟州郡에 安德面과 城山面은 濟州道 東西 쪽에 치우쳐 있어 당시 교통이 불편<sup>22)</sup>하고 마을 연대의식이 강하게 유지되므로 인하여 濟州市나 西歸浦邑으로의 인구 전출이 적었고 수산업 人口의 집중으로 높은 人口增加率을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특이한 현상은 比較的 都市 性格을 가지고 있는 翰林邑(1.9%), 大靜邑(1.1%)이 2% 이하의 微增 地域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 地域이 인구 흡입력이 매우 미약하고 增加率도 全國 年平均增加率에 비하여 뒤떨어져 인구 전출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面은 연평균 인구증가율 1%대의 微增地域이고 그중 翰京面이 0.15%로 가장 낮다. 이 기간중 濟州市 人口增加率은 의정부, 서울, 대구, 원주, 속초, 울산, 인천에 이어 9번째의 高率成長 都市로 나타나고 있다. 濟州市보

22) 제1횡단 도로가 1963년에 개통되므로 인하여 이 도로가 濟州市와 西歸邑을 직접 연결하면서 지역교통의 남북현상이 나타남.

다 높은 都市를 보면 서울, 대구는 행정 도시이고, 의정부, 원주는 군사도시, 속초, 울산은 이 기간중 새로 市로 승격된 都市로 특히 울산은 1966年 6月 20日 중공업 개발을 목적으로 경인지역에 이어 두번째로 特定 地域으로 指定되어 발전하게 된데 기인하고 있고, 인천은 서울과 더불어 수도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이 시기의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이 立案 시행은 先工後農的인 개발이 국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존 및 신흥 공업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방의 非工業 中小 都市는 발전이 정체되거나 쇠퇴의 기미마저 보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非工業 都市로서의 濟州市만은 이와달리 人口 增加가 부단히 이루어져 왔다. 이는 1960年代의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이 결과로 전국민의 가처분 소득 및 가처분 시간의 증가에 따른 여가 활동이 활발하여짐과 때를 같이하여 濟州市가 관광 수요지의 기능을 갖게 되면서 人口增加를 가져온 것이다.<sup>23)</sup>

1966~1970年 濟州道 人口增減을 <그림2>를 통하여 살펴보면, 1960年代初에 減少 邑面이 全無하였던 濟州道가 이 期間에 들어와서는 減少 邑面이 5個나 나타나고 있다. 全國値(1.89%)를 上廻하는 邑面은 西歸邑(5.9%), 南元面(2.2%) 등 2個 邑面 뿐으로 1960年代初의 5個 邑面에 比하여 줄어들었다. 이를 郡別로 區分해서 살펴보면 北濟州郡은 6個 邑面 가운데 4個 邑面이 人口 絶對減少地域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翰林邑(0.2%)도 1% 未滿의 微增을 나타내어 6個 邑面 전체가 人口轉出地域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南濟州郡은 7個 가운데 安德面 만이 絶對人口減少地域을 나타냈을 뿐 나머지 6個 邑面은 人口 增加 地域으로 나타나 北濟州郡과는 좋은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北濟州郡은 濟州市를 中心으로 兩쪽으로 分布하여 濟州市에로의 人口 轉出地域이 되고 있는데 反하여 南濟州郡은 濟州市와 比較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1960年代부터 일기 시작한 감귤 재배붐으로 因하여 西歸邑을 中心으로 한 몇개 邑面이 人口 吸引地域的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1960年代初와 마찬가지로 翰林邑(0.%), 大靜邑(0.5%)이 오히려 前期보다 낮은 1% 미만의 年平均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全國的인 現象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대의 中心邑이 거

23) 濟州市, 前掲書, p.81.

의 예외없이 정체 혹은 감소를 면치 못하는 事實과 一致하고 있다.<sup>24)</sup> 이 期間에 濟州市는 10萬 以上の 都市로 급성장하였다. 1960年代初에 比하여 全國値는 3.1%에서 1.9%로 둔화된데 대하여 濟州市의 年平均値는 4.4%에서 8%로 增加하였다. 이는 이 기간의 都市 人口 年平均値 8%와 같고 있지만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속초에 이어 8번째의 高成長率을 보이고 있다.<sup>25)</sup> 이러한 결과로 인해 1960年代初에 濟州市의 年平均增加率을 능가하던 西歸邑은 이 기간에 와서는 濟州市보다 낮은 年平均增加率을 나타냈던 것이다.

#### 나) 1970年代

1970~1975年 濟州道の 人口增減을 살펴보면 그림<3>에서와 같이 北濟州郡의 翰林邑, 翰京面 朝天面과 南濟州郡의 西歸邑, 南元面 등 5個 邑面이 全國値(1.98%)를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970年代부터 일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인해 농가 소득이 높아지고 果園 擴散과 동시에 전입에 의한 人口 增加 결과로 해서 西歸邑이나 南元面이 커다란 人口增加를 가져오게 했다. 安德面은 1960年代에 이어 계속하여 절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隣接한 大靜邑이나 西歸邑 地域으로 轉出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기간에 濟州市의 人口 增加는 1960年代에 이어 계속 激增現象을 보이고 있고 60年代에는 全國 都市 年平均增加率에 比하여 뒤져서 增加한데 대하여 이 기간에는 全國 都市 增加率이 鈍化 했는에도 不拘하고 濟州市는 60年代 후기보다 약간 상회하였다.<sup>26)</sup>

1975~1980年間の 人口增減을 <그림4>에서 살펴보면 濟州道の 13個 邑面중 11個 邑面이 增加하고 2個 邑面이 減少하여 1960年代初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增加率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全道値(2.3%)보다 높게 증가한 邑面은 北濟州郡의 翰林邑(2.3%)뿐이고, 全國値 보다 높은 邑面은 南濟州郡의 西歸邑, 中文面, 南元面등으로 이

24) 姜相培, “濟州道の 地域別 人口增減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Ⅱ)”, 前掲書, p. 23.

25) 上掲書, p. 25.

26) 南濟州郡, “人口”, 「南濟州郡 三十年史」, 1981, p. 76.

들 4個 邑面이 실질적인 人口 轉入地域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增加 邑面은 大部分 微增 邑面으로 實質的인 人口 轉出地域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여기에서 南元이 人口 數의 增加率에서 단연 優位를 나타내어 앞서의 기간에 보여왔던 增加 傾向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러나 增加率에 있어 城山이 年平均 1.4%를 나타내므로서 人口 增加가 현저한 새로운 지역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人口 增加는 邑 승격의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漁業前進基地와 관광 산업에 바탕을 둔 小邑 建設이 城山浦와 古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다.<sup>28)</sup> 이 기간에 濟州市 人口증가율 19.4%는 40個 市中 富川·安養·蔚山·浦項·淸州·水原·城南·江陵·仁川·晉州·大田·天安에 이어 13位の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다른 都市들이 1970年代初와 같이 首都圈 내지 工業 都市들인데 대하여 1970年代末에는 淸州·晉州 등과 같이 地方 行政 都市가 긴 것도 特色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濟州市는 40個 市中 人口 數에 있어서도 1980年 現在 16位로 1970年代初보다 5個 市가 붙었는데도 1位가 上昇하여 中小 都市로서는 비교적 성장률이 빠른 셈이다.<sup>29)</sup> 이러한 濟州市 人口成長은 1975年 濟州道 觀光綜合開發計劃이 발표되었고, 1977年 蓮洞 吾羅洞 地域 43萬坪에 걸친「新濟州」建設 事業의 急進的인 촉진등으로 人口 成長이 이루어진 데 기인한다.

#### 다) 1980年代初

이 기간 중 濟州道 전체 人口는 1960年 以後 가장 낮은 增加率을 나타내어 全國値를 하회하는 增加率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낮은 增加率로 인하여 邑面 人口 增加率은 濟州市와 西歸浦市에 한정하여 增加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계속적 增加를 보이던 감골 재배 지역인 南元邑의 감소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지역적

27) 姜相培, “濟州道 地域別 人口增減에 관한 地理學的研究(Ⅱ)”, 前掲書, p. 25.

28) 南濟州郡, 前掲書, p. 76.

29) 姜相培, “濟州市의 人口에 대한 研究”, 前掲書, p. 7.

독점생산을 하던 감귤 재배지가 확대되어 독점적 인구유입적면이 해소되고, 많은 농업 人口가 필요치 않아 人口가 감소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사실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 개발 정책과 국민 소득의 向上으로 인하여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이 국가적으로 확대되자, 관광 기능과 숙박 시설이 중심이 된 濟州市와 西歸浦市에 3차 산업 人口가 집중되어 갔으며, 두개의 市 중에서도 教育 기관이 濟州市에 集中됨으로 인하여 教育열이 강한 濟州道民은 자식을 위하여 濟州市에 전입하는 경향이 나타나 濟州市 人口의 팽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濟州市 人口의 年平均 人口增加率は 2차산업의 부진으로 道外 人口 흡수가 되지않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부각시켜 누구나 쉽게 주어진 人口增加率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人口의 倍加期間, 즉 人口가 두배로 증가한데 기간 산출<sup>30)</sup>에 의해 살펴볼때 1985年 年平均 人口增加率 3.9%로 增加한다면 濟州市가 40萬 以上の 都市로 성장하는 데 18년이 걸리게 된다. 만약 西歸浦市인 경우도 1985年 年平均 增加率(1.4%)과 같은 比率을 계속 증가한다 가정하면, 16萬 以上の 人口가 되는 시기는 50년이나 걸리게 된다는 산출이 나온다.

## 2. 人口密度的 變化

人口 密度란 人口와 面積 間의 比를 직접 계산한 것으로서  $km^2$ 당 面積에 대한 人口數를 나타낸다. 濟州道 전체의 人口 密度는 1987年 275人/ $km^2$ 로 全國의 429.3人/ $km^2$ 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人口 密度가 이렇게 낮은 理由는 濟州道에 많은 面積

30) 李喜演, 前掲書, p. 57.

人口의 倍加期間은 주어진 年平均 增加率로 인구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 複利計算式으로 산출하는 것이 통례이다. 人口 增加率을 계산하는 공식에서 人口가 두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frac{P_2}{P_1} = 2$ 로 표시되므로  $P_1$

$r \cdot n = \log_e 2$                        $r$  : 年平均 增加率  
 $r = \frac{1}{n} (0.693)$                        $n$  : 倍加期間

을 차지하는 中山間 地帶가 유희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특용 작물 재배, 축산 단지 조성, 관광 개발 등, 중산간 지대의 개발로 점차 人口 密度가 增加하고 있다.<sup>31)</sup>

1960年度 濟州道 人口 分布 상황을 살펴보면 濟州市 24.3%, 西歸浦市 14.5% 北濟州郡이 37.3%, 南濟州郡 26%의 人口가 거주하였다. 이러한 人口 分布로 인하여 <그림6>에서 살펴보면 1960年度 人口 密度는 濟州市인 경우 1㎢당 269人을 나타내어 最多稠密度를 나타내게 된다. 반면에 南濟州郡의 南元邑이 人口分布比 4.9%에 人口 密度 73.6人/㎢을 나타내고 있고 表善面은 人口 密度 78.6人/㎢을 나타내어 濟州市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와같이 南元邑과 表善面이 낮은 人口 密度를 보이는 것은 이 당시에 감귤 재배가 성행하지 않아 소득원이 없었고 땅이 척박하여 인구 흡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넓은 面積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人口 密度가 낮았으리라 생각된다. 이 時期에 濟州道 平均 人口 密度를 넘는 邑面은 北濟州郡의 翰林, 翰京, 南濟州郡의 大靜, 城山으로 그 理由는 面積이 적고 이 당시에 道民의 소득원이 중심이 된 어업으로 인해 노동력 흡수가 이루어져 人口 密度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당시에 大靜의 人口 密度가 높은 것은 한국 동란기에 육군 훈련소 설치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1970년에 이르러 濟州市 地域은 人口 集中이 계속되어 道 全體 人口의 29.13%가 거주하게 되고, 人口 密度 또한 419人/㎢으로 1960년에 비해 조밀화 된다. 이와함께 1960년에 濟州道 人口 密度에 못 미치던 西歸浦 地域이 괄목할 만한 人口 集中이 이루어져 濟州道 人口 密度 200人/㎢를 넘어서게 되었다. 北濟州郡의 翰林邑과 南濟州郡의 大靜邑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人口 密度가 道 人口 密度를 넘고 있으나, 人口 分布에 있어서는 南元邑을 제외한 邑 面 地域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濟州市와 西歸浦市가 관광 개발의 확대, 문화 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人口 흡입적인 역할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여기에서 南元邑이 人口 分布比가 1960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이 地域이 감귤 생산 재배지가 되어 전입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31) 姜相培, "濟州道 內의 人口에 對한 研究", 前掲書, p. 11.

〈表4〉 濟州道 人口密度와 分布比

단위 : 人/km 단 ( )은 分布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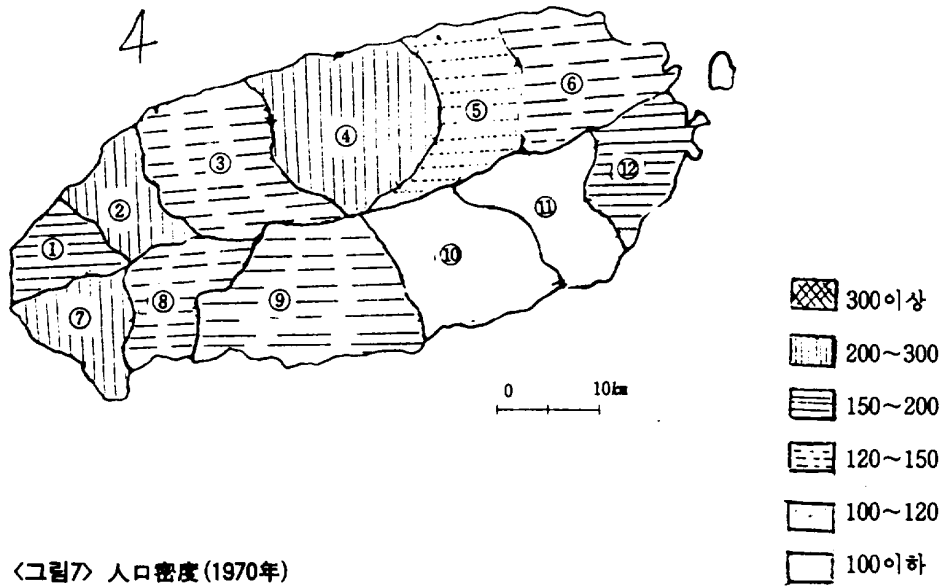
|      |     | 면적(km)        | 1960        | 1970        | 1980       | 1987        |
|------|-----|---------------|-------------|-------------|------------|-------------|
| 濟州道  |     | 253,4.81(100) | 154.7(100)  | 200 (100)   | 253.7(100) | 275 (100)   |
| 濟州市  |     | 253.95(13.9)  | 269 (24.3)  | 419 (29.13) | 660(36.21) | 854 (43.1)  |
| 西歸浦市 |     | 263.83(14.5)  | 133.6(12.5) | 225 (16.25) | 292(16.66) | 321.7(16.9) |
| 北濟州郡 | 翰林邑 | 86.43(4.7)    | 236 (7.3)   | 272 (6.43)  | 314(5.85)  | 289 (5.0)   |
|      | 涯月邑 | 191.37(10.5)  | 120 (8.2)   | 135 (6.7)   | 135(5.59)  | 126 (8.2)   |
|      | 舊左邑 | 180.06(9.8)   | 141.2(9.0)  | 145 (7.36)  | 143(5.74)  | 112.3(4.0)  |
|      | 朝天邑 | 151.88(8.3)   | 101.5(5.5)  | 118 (4.92)  | 132(4.34)  | 131.8(3.98) |
|      | 翰京面 | 62.22(3.4)    | 184 (5.4)   | 190 (4.28)  | 198(3.51)  | 182.5(2.98) |
|      | 全體  | 704.81(38.6)  | 149 (37.3)  | 163 (31.5)  | 174(26.4)  | 160 (22.5)  |
| 南濟州郡 | 大靜邑 | 79.95(4.4)    | 257.2(7.3)  | 289 (6.32)  | 327(5.64)  | 289.9(4.4)  |
|      | 南元邑 | 187.3(10.3)   | 73.6(4.9)   | 103 (5.28)  | 126(5.09)  | 122.9(4.6)  |
|      | 城山邑 | 96.33(5.3)    | 160.5(5.5)  | 190 (5.00)  | 124(4.46)  | 202.9(2.9)  |
|      | 安德面 | 104.47(5.7)   | 121 (4.5)   | 122 (3.48)  | 125(2.82)  | 108.5(2.3)  |
|      | 表善面 | 136.36(7.5)   | 78.6(3.8)   | 82 (3.03)   | 94(2.71)   | 85.9(2.3)   |
|      | 全體  | 602.20(33)    | 121.6(26)   | 140.3(23)   | 159(20.7)  | 146 (17.5)  |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1961, 1971, 1981,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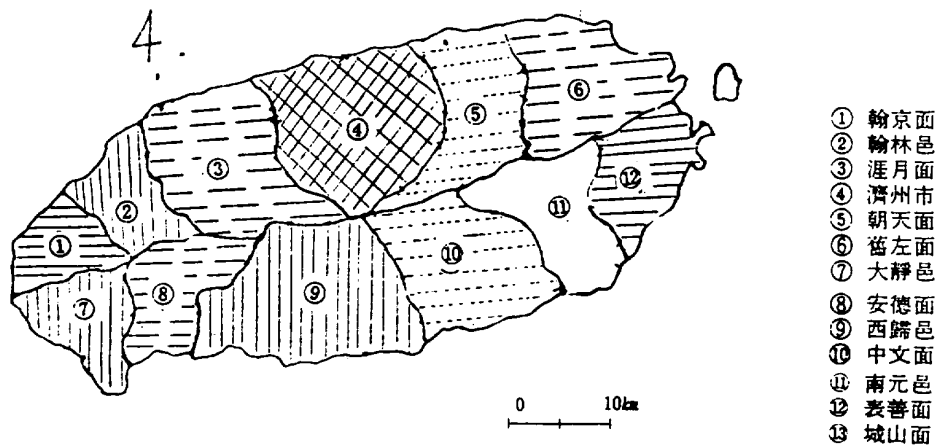
註1) 濟州道 面積에 대한 比率(%)을 말함

註2) 濟州道 人口에 대한 比率(%)을 말함

〈그림6〉 人口密度 (196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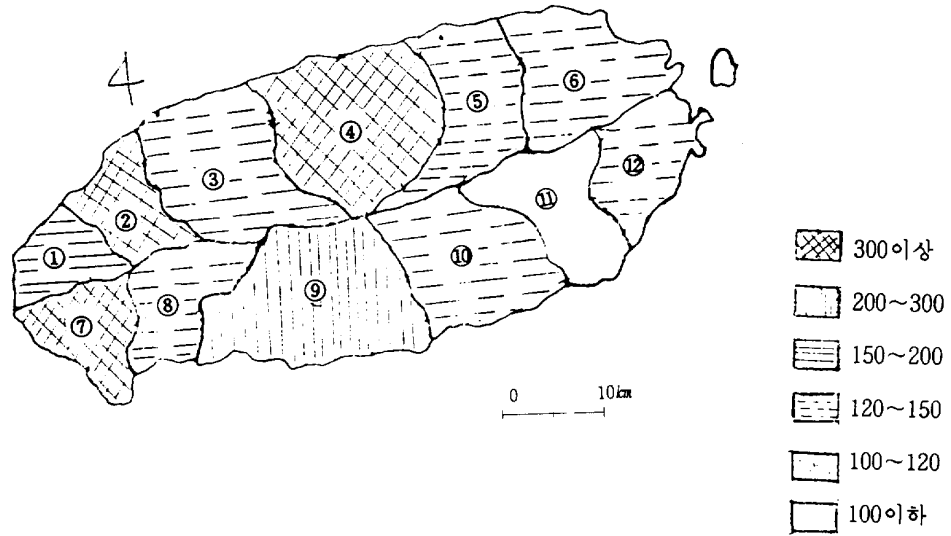


〈그림7〉 人口密度 (197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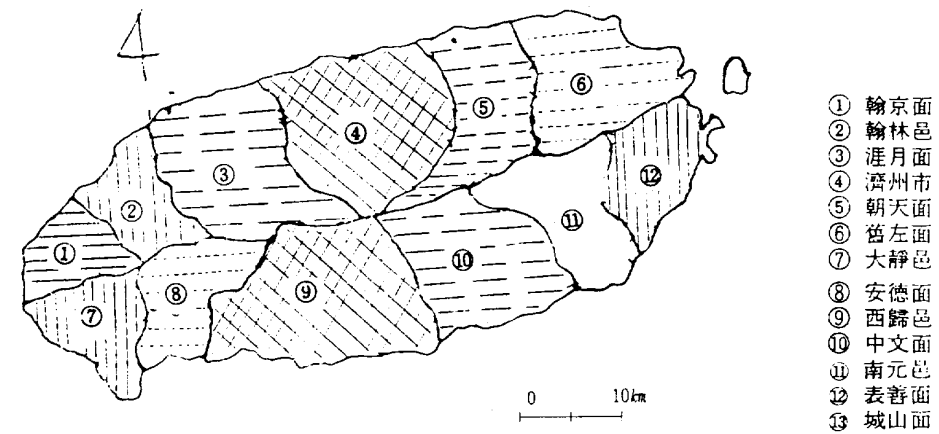


註1) 中文과 西歸邑을 합쳐서 계산함

<그림8> 人口密度(1980年)



<그림9> 人口密度(1987年)



註2) 1980年 人口密度는 西歸邑과 中文面을 합쳐서 계산함

그리고 表善面이 1960年代와 마찬가지로 人口 密度 100人/km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市와의 交通이 취약 지구인 점과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人口 흡입을 유발 시키는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1980年 濟州道 人口 密度는 268人/km로서 충북 및 경북보다도 높다. 이것은 1960年에 강원도 다음으로 낮았던 濟州道 人口 密度 157人/km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감굴 과수원과 관광지의 개발로 전입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sup>32)</sup> 이 시기에 濟州市와 西歸浦市는 人口 分布와 人口 密度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나머지 지역은 人口 分布比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人口 密度에 있어서는 北濟州郡의 翰林邑, 南濟州郡 大靜邑 만이 濟州道 평균 수준 이상이 되고 나머지 지역 邑·面은 전체적으로 濟州道 平均 人口 密度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人口分布比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都市로의 人口 集中은 時間 經過에 따라 더욱 增大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5년에 이르러서는 濟州市와 西歸浦市 人口가 濟州道 전체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계속 증가를 보이거나 全國的인 市部의 人口 密度에 있어서는 서울과 부산 이외에 인천(6,819人/km), 부천(8,742人/km), 안양(6,191人/km), 광명(5,645人/km), 목포(6,745人/km), 마산(6,171人/km)이 높고 서귀포(313人/km), 태백(440人/km)이 가장 낮다. 이와같이 西歸浦 人口 密度가 낮은 것은 市界의 과대한 설정으로 인한 것이다. 즉 한라산의 산정부까지 北斜面은 濟州市(800人/km) 南斜面은 서귀포시로 되어있기 때문인 것이다.<sup>33)</sup> 또 하나의 특이한 사실은 1980年代까지 人口 密度 增加를 보이던 城山을 제외한 翰林·大靜·朝天·翰京·南元·安德·表善 등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濟州市와 西歸浦市는 1960年 以後 都市化가 진전됨에 따라 人口 分布比와 人口 密度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南濟州郡과 北濟州郡은 人口 分布比에 있어서는 1960年代 以後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고

32) 權赫在, 前掲書, pp. 421~422.

33) 上掲書, p. 424.

있고 人口 密度에 있어서는 1980年代를 고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郡 地域의 人口減少는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인한 영향과 낮은 농가 소득으로 인해 人口 密度는 관광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向해 人口 集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 농산물의 압력이 계속 되면 될수록 都市를 向한 人口 集中은 계속 되리라 전망된다.

## IV. 人口 動態

### 1) 自然的 增加率

濟州道の 人口 動態<sup>34)</sup> 파악을 위한 資料로서 自然的 增加에 대해서는 1957年 이전의 資料가 미비하고 1957年 以後의 資料에서도 1971年~1974年까지의 資料가 미비하다. 社會的 增加에 대해서는 1969年 以後의 것만이 있어 1969年 以前 것은 資料化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먼저 自然的 增加이 出生에 대하여 살펴보면 出生은 남녀의 性的 結合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혼인 구조의 變化는 出生率이 變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위적인 생산 억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혼인 구조 특히 可妊年齡層 女性의 有配偶率은 出生率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表5〉 可妊 年齡層 女性의 有配偶率

(%)

| 年度<br>地<br>域<br>年齡 | 1955  |       | 1960  |       | 1966  |       | 1970  |       | 1975  |       |
|--------------------|-------|-------|-------|-------|-------|-------|-------|-------|-------|-------|
|                    | 全 國   | 濟 州   | 全 國   | 濟 州   | 全 國   | 濟 州   | 全 國   | 濟 州   | 全 國   | 濟 州   |
| 15세 이상<br>여성 전체    | 63.27 | 54.14 | 62.51 | 54.58 | 60.04 | 55.06 | 59.09 | 56.37 | 57.06 | 55.56 |

資料：이창기,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2, p.175.

34) 動態 申告란 出生・死亡・移住 등 動態事象(vital events)이 일어날 때마다 얻게되는 動態統計이다. 申告의 항목은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養子 등으로서 동태 통계는 이러한 事象이 일어날 때마다 신고되기 때문에 人口센서스의 靜態의인 面과는 대조적으로 계속 변화되는 動態의인 특징을 갖고 있다.

〈表5〉에 의하면 可妊女性の 有配偶率は 全國과 比較하여 특이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可妊女性の 有配偶率は 全年齡에 걸쳐서 全國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全國에 비해 10년이나 늦게 出生率 上昇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理由는 濟州道 女性の 낮은 有配偶率は 女性の 만혼 경향과 일제시 많은 남자의 海外移出, 1948年の 4·3사건으로 많은 남성의 희생, 높은 이혼율 등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up>35)</sup>

〈表6〉 自然的 增加率의 變化

(단위 : 1,000名)

| 年 度  | 出 生       | 死 亡       | 年 平 均<br>自 然 增 加 率 | 年 度  | 出 生       | 死 亡        | 年 平 均<br>自 然 增 加 率 | 年 度  | 出 生       | 死 亡      | 年 平 均<br>自 然 增 加 率 |
|------|-----------|-----------|--------------------|------|-----------|------------|--------------------|------|-----------|----------|--------------------|
| 1957 | 4.8(1.9)  | 1.2( 4.6) | 2.1%               | 1967 | 14.2(4.1) | 2.8( 8.1)  | 4.8%               | 1981 | 12.1(2.6) | 4.5(9.6) | 1.2%               |
| 1958 | 5.7(2.1)  | 1.4( 5.3) |                    | 1968 | 13.1(3.7) | 2.9( 8.1)  |                    | 1982 | 10.3(2.2) | 3.3(7.0) |                    |
| 1959 | 6.3(2.3)  | 1.4( 5.2) |                    | 1969 | 3.5(9.5)  | 3.0( 21.6) |                    | 1983 | 11.1(2.3) | 4.0(8.4) |                    |
| 1960 | 5.5(2.0)  | 1.2( 4.3) |                    | 1970 | 7.7(2.1)  | 3.1( 8.5)  |                    | 1984 | 10.0(2.1) | 3.7(7.7) |                    |
| 1961 | 25.2(9.0) | 7.5(26.7) | 4.1%               | 1975 | 17.9(4.3) | 4.0( 9.7)  | 2.39%              | 1985 | 7.7(1.6)  | 3.2(6.6) |                    |
| 1962 | 8.8(3.0)  | 2.5( 8.5) |                    | 1977 | 10.0(2.3) | 3.5( 8.1)  |                    |      |           |          |                    |
| 1963 | 14.8(4.8) | 3.8(12.4) |                    | 1978 | 8.9(2.6)  | 3.1( 7.0)  |                    |      |           |          |                    |
| 1964 | 6.4(2.0)  | 1.8( 5.7) |                    | 1979 | 10.7(2.3) | 3.0( 6.6)  |                    |      |           |          |                    |
| 1965 | 8.4(2.6)  | 2.3( 7.1) |                    | 1980 | 13.4(2.9) | 4.0( 8.7)  |                    |      |           |          |                    |
| 1966 | 10.4(3.1) | 2.6( 7.7) |                    |      |           |            |                    |      |           |          |                    |
|      |           |           |                    |      |           |            |                    |      |           |          |                    |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各년도

註 : ( )은 증가율

濟州道 人口의 自然的 增加<sup>36)</sup>를 〈表6〉에서 보면 1961~1966년까지의 年平均 自然的 增加率は 4.1%로 1957~1960年 까지의 年平均 自然的 增加率 2.1%보다 커다란

35) 李昌基, 前掲書, p. 170.

36) 人口成長은 자연적 증가와 社會的 增加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자연적 증가는 出生과 死亡의 차이에서 오는 人口의 증가를 의미하고 社會적 증가는 일정 지역에서 遷出하는 사람의 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순이동(net migration)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口成長 規模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年平均 自然的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고, 1967~1970年 까지의 年平均 自然的 增加率은 4.8%로 커다란 增加率을 보여 전국보다 늦은 베이비 붐(Baby Boom)을 나타내고 있다. 1972~1974年, 그리고 1976年의 資料가 미비한 관계로 李昌基의 前掲 論文에서 살펴보면 1970~1975年 自然的 增加의 年平均 推定値는 2.4%로 前 기간보다 상당히 낮아져 自然的 增加는 1970年을 轉換期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自然的 增加의 감소 추세는 그후 계속되어 1977~1980年에는 出生率은 年平均 2.39%를 보이고 前 期間보다 둔화되는 出生率을 나타내고 있고, 1980年代 초반에 이르러서는 1.2%로 더욱더 감소 추세에 있다.

다음은 死亡率을 살펴보면 1957~1960年 年平均 死亡率은 11.35%이고 1967~1970年 年平均 死亡率은 11.6%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1977~1980年 사이에는 年平均 6.45%로 떨어지고 있어 濟州道 人口는 小産小死型의 단계에 돌입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 2. 社會的 增加

人口의 移動은 人口動態 要目이 하나인 社會的 動態로서 人口의 移入과 移出에 의하여 發生 되어지는 社會的 現象인 同時에 地域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한 社會의 人口가 封鎖人口의 性格을 갖지 않는 경우에 人口 移動은 人口 成長을 決定하는 重要한 人口學的 變수가 된다. 人口移動은 두 地域의 社會 經濟的 條件과 移動者의 生活 樣式 가치관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出生 및 死亡과는 달리 매우 社會的 現象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人口 移動 現象은 고용의 기회, 生必需品에 대한 구입의

$$P_{t_1} - P_{t_0} = B_{t_1-t_0} - D_{t_1-t_0} + I_{t_1-t_0} - O_{t_1-t_0}$$

$t_0$  : 인구성장규모를 알아보기 위한 시점

$t_1$  :  $t_0$ 를 기준으로 선정된 어떤 시점

$P_{t_1}$  : 기준 시점의 人口數

$P_{t_0}$  : 선정된 시점 인구수

$B_{t_1-t_0}$  : 시점  $t_0$ 과  $t_1$  사이에 출생아수

$D_{t_1-t_0}$  : 시점  $t_0$ 과  $t_1$  사이에 사망자수

용이함 등, 經濟的 要因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人口 移動은 社會 經濟的 背景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37)</sup> 따라서 人口 移動의 分析은 移動의 量과 方向 뿐만 아니라 移動 人口의 特性까지도 研究 對象으로 할 때 더욱 큰 意味가 있지만 여기서는 人口 成長과 관련하여 純人口 移動量만을 分析하기로 한다.

1955~1960年 間에 濟州道 移出 人口는 41,000人으로 推定되고 남자가 39,000人 女子가 2,000人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移出 超過 現象에 의하여 1955~1960年 간의 人口 增加率은 -0.8%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軍人인 流動人口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高甲錫의 論文에서 밝히고 있다.<sup>38)</sup> 高甲錫의 이러한 推定을 어느정도 精確한 것으로 본다면 1955~1960年 濟州道 人口의 年平均 增加率 -0.5%는 自然的 增加率 2.3~2.4%, 社會的 增加率 -2.8~-2.9%로 構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1965年은 濟州道가 大量 移入 超過를 經驗했던 時期이다. 高甲錫은 이 기간의 移入 超過 人口를 17,472人으로 集計하고 있다. 資料의 出處를 밝히지 않아서 산출 근거는 알 수 없지만 당시 濟州道의 出生水準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너무 過多 集計<sup>39)</sup>로 李昌基는 그의 推定으로 당시의 自然的 增加率을 2.7%로 가정할 때 1960~1966年의 移入 超過 人員數는 約 9,000人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65年 부터는 移入過程 現象이 현저하게 둔화 되어서 1960年代에는 오히려 移出 超過의 증후를 보인다.<sup>40)</sup> 1960年代 후반의 이러한 原因은 1960年代 初의 각종 建設 사업과 觀光 개발에 따른 과도한 移入過程에서 1970年代 初의 移出超過로 移行 되어 가는 轉換期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1969年 以後 1985년까지 1971年, 1974年, 1984年の 3年 동안만 移入 超過를 나타내고 나머지 13년은 모두 移出超過를 보여주고 있어 濟州道의 人口成長은 自然的 增

37) 濟州道, 「濟州道誌」(上), 濟州道, 1982, p. 605.

38) 高甲錫, 崔英姬, “濟州島 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 第2號, 1966, p. 104.

39) 李昌基, 前揭書, p. 180.

40) 「濟州統計年報」의 住民登錄 申告 集計에 의하면 1969년에 3,676人, 1970년에 3,257人 移出超過를 기록함 <表7 참조>

〈表7〉 人口移動 現況

| 年 度  | 移 入    |        |        |     | 移 出    |        |        |     | 増 加 數<br>(移入-移出) |
|------|--------|--------|--------|-----|--------|--------|--------|-----|------------------|
|      | 계      | 도 내    | 도 외    | 국외  | 계      | 도 내    | 도 외    | 국외  |                  |
| 1969 | 7,855  | 4,605  | 3,428  | 2   | 11,531 | 5,868  | 5,652  | 3   | -0.95%           |
| 1970 | 14,550 | 9,270  | 5,277  | 3   | 17,807 | 11,464 | 6,343  | —   |                  |
| 1971 | 19,064 | 12,429 | 6,623  | 12  | 18,103 | 12,570 | 6,423  | —   | -0.64%           |
| 1972 | 19,404 | 12,057 | 7,338  | 9   | 21,877 | 13,501 | 8,376  | —   |                  |
| 1973 | 25,845 | 16,158 | 9,685  | 2   | 27,174 | 18,412 | 8,762  | —   |                  |
| 1974 | 29,176 | 19,492 | 9,684  | —   | 28,647 | 19,726 | 8,921  | —   |                  |
| 1975 | 50,939 | 34,221 | 16,718 | —   | 60,840 | 34,221 | 26,619 | —   |                  |
| 1976 | 36,273 | 23,291 | 12,982 | —   | 43,315 | 23,291 | 20,024 | —   | -1.38%           |
| 1977 | 43,287 | 31,028 | 12,259 | —   | 51,682 | 31,028 | 20,645 | —   |                  |
| 1978 | 45,012 | 30,719 | 14,293 | —   | 54,648 | 30,719 | 23,929 | —   |                  |
| 1979 | 44,963 | 30,064 | 14,207 | 692 | 45,778 | 30,004 | 15,660 | 54  |                  |
| 1980 | 56,168 | 41,438 | 17,060 | 670 | 60,219 | 42,027 | 18,042 | 150 |                  |
| 1981 | 59,131 | 41,103 | 17,505 | 523 | 60,519 | 41,686 | 18,692 | 141 | -0.35%<br>-1.64% |
| 1982 | 58,848 | 41,793 | 16,680 | 375 | 61,892 | 42,645 | 19,062 | 185 |                  |
| 1983 | 71,649 | 49,117 | 22,150 | 382 | 72,852 | 48,741 | 23,989 | 122 |                  |
| 1984 | 48,207 | 48,864 | 19,069 | 274 | 67,979 | 46,718 | 21,161 | 100 |                  |
| 1985 | 63,619 | 46,362 | 17,079 | 178 | 66,414 | 46,071 | 20,280 | 63  |                  |

資料：濟州道 統計年報, 1986.

註) 우리나라의 경우 動態統計는 邑面 또는 市郡에 國民의 신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각 市道에서 市道別 연달 常住 人口를 집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人口移動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후 부터이다. 그 以後 매년 주민등록에 의한 人口이동 통계를 작성하여 「人口移動統計年報」로서 발표되고 있다.

加에 의한 農村型 人口 成長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9~1970년까지 2年間の 社會的 增加率을 보면 年平均 0.95%씩 減少하고 있으며 移入對象地別로 보면 道內에서가 전체의 61.9%를 차지하고 있고 移出에 있어서도 道內로의 移出이 59.1%를 나타내어 濟州道の 人口 移動은 주로 道內에서의 移動이 多數가 되고 있다.

1971~1975年 사이에는 年平均 0.64%의 減少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社會的 減少는 1976~1980년에 -1.38%의 人口 減少를 나타내어 濟州道の 社會的 增加는 時間 經過에 따라 더욱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1985年の 5年間 社會的 增加率을 보면 0.35%의 감소를 나타내며 前期間에 비해 增加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극히 저조한 農村型 人口 成長단계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濟州道는 自然的 增加에 의한 인구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현재 濟州道 자연적 增加는 감소 추세에 있고 道外 人口를 흡수할 만한 機能이 충분하지 못하여 社會的 增加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濟州道 人口 成長率은 全國 人口 成長率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 V. 人口 構成

### 1. 性別 年齡別 人口 構成의 變化

#### 가) 性比의 變化

性別 人口 構成의 특징을 파악하는데에는 性比를 가지고 行하는데, 性比란 男子 數와 女子 數의 比率를 말하는 것으로서 女子 100人에 대한 남자의 數로서 표현한다.<sup>41)</sup>

현대적 인구 조사가 실시된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濟州道 性比는 86.6 정도로써 女超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日帝時에 濟州道の 性比가 이렇게 낮은 것은 濟州道民의 해외 이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1940年 以後에는 태평양 전쟁에 따른 징병으로 濟州道民의 道外移出은 한층더 격화되었다. 제2차 대전 중 日本으로 강제 연행된 濟州道民은 약 5만인에 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sup>42)</sup> 해방 당시 在日 濟州道民은 約 10萬人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sup>43)</sup> 1944年 國勢調査의 性比가 85.5의 낮은 水準을 보이게 되었다.

解放과 더불어 많은 濟州道民의 귀환함으로서 日帝下의 극심한 性比 不均衡은 많이 호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解放 당시 在日 濟州道民 10萬人 중 실제로 귀환한 자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6萬人이 그대로 日本에 잔류한 것으로 보이고<sup>44)</sup> 또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진행된 4·3사건으로 濟州道民의 性比는 1949年 人口 센서스에 82.1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0年 6·25동란으로 인해 본지역 남자들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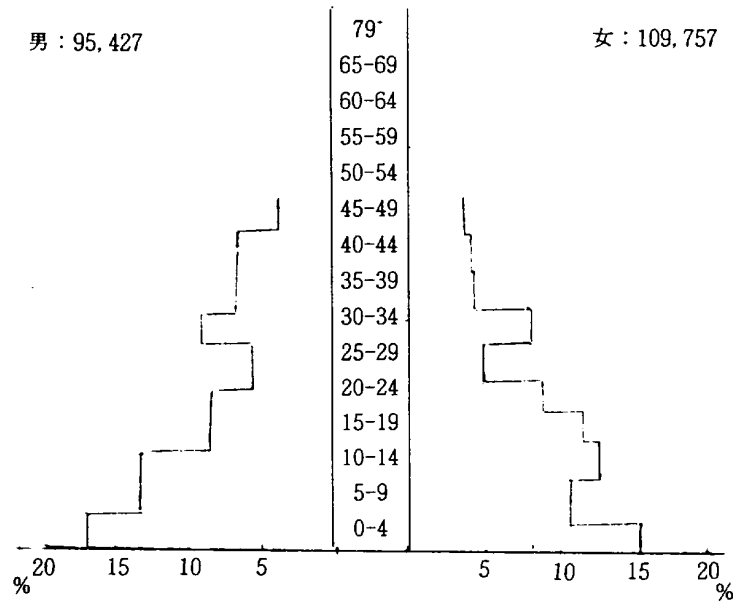
41) 宋成大, “濟州市의 人口成長에 관한 考察”, 論文集, 제20輯, 濟州大學校 1985, p. 248.

42) 濟州道, 前掲書, p. 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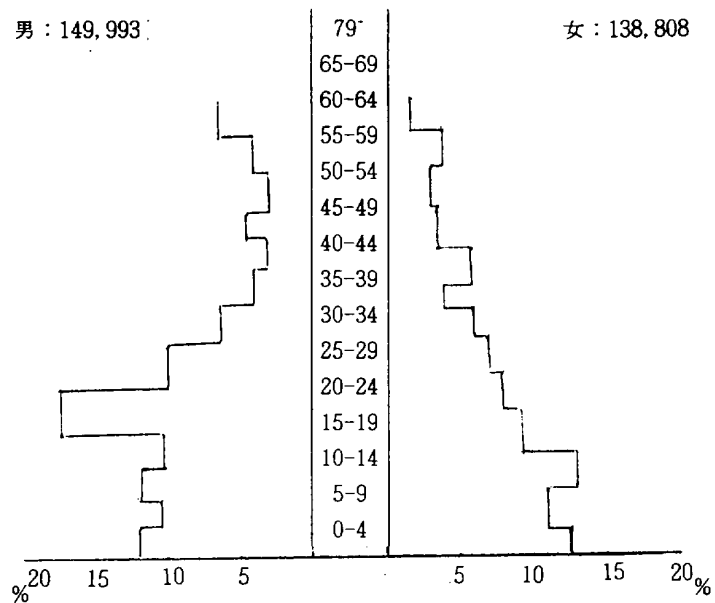
43) 朴用厚, 「濟州島誌」, 1976, p. 176.

44) 申幸澈, “제주제일교포 그 소주 집단으로서의 性格과 階層構造”, 「耽羅文化」 創刊號, 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소, 1982, pp. 128~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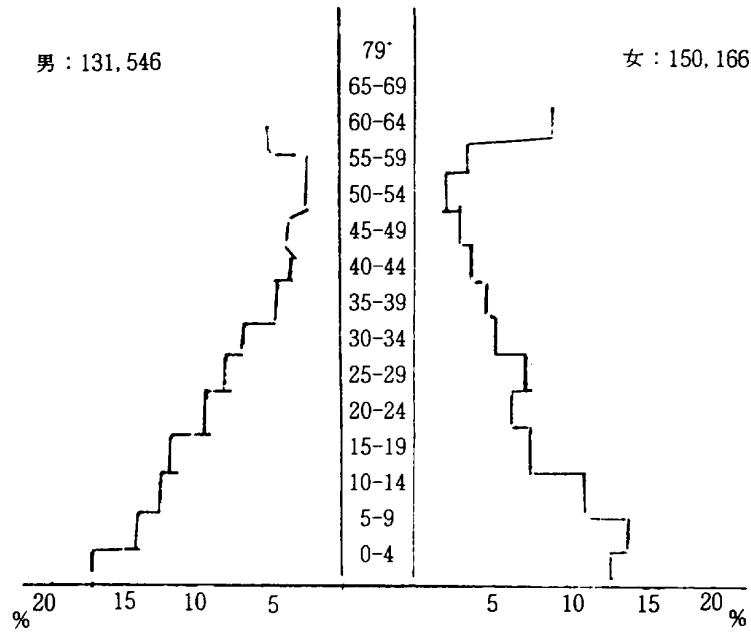
〈그림10〉 1925年 人口 피라미드



〈그림11〉 1955年 人口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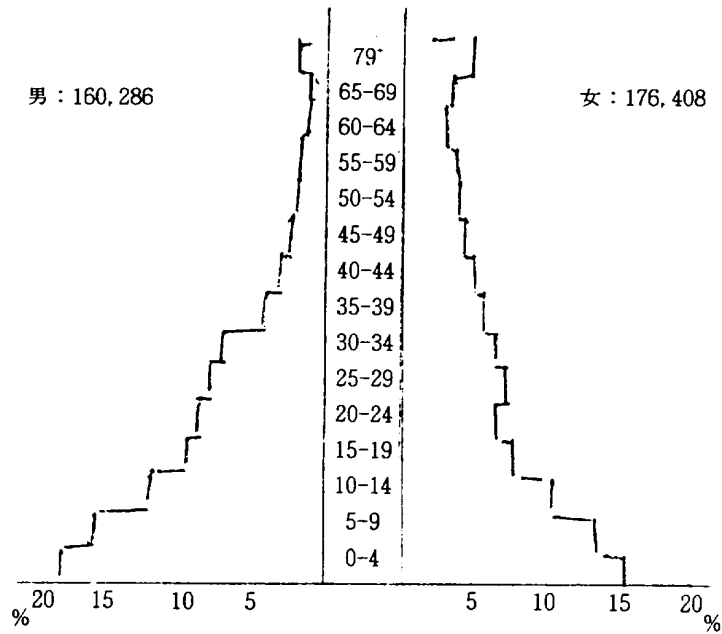


〈그림12〉 1960年 人口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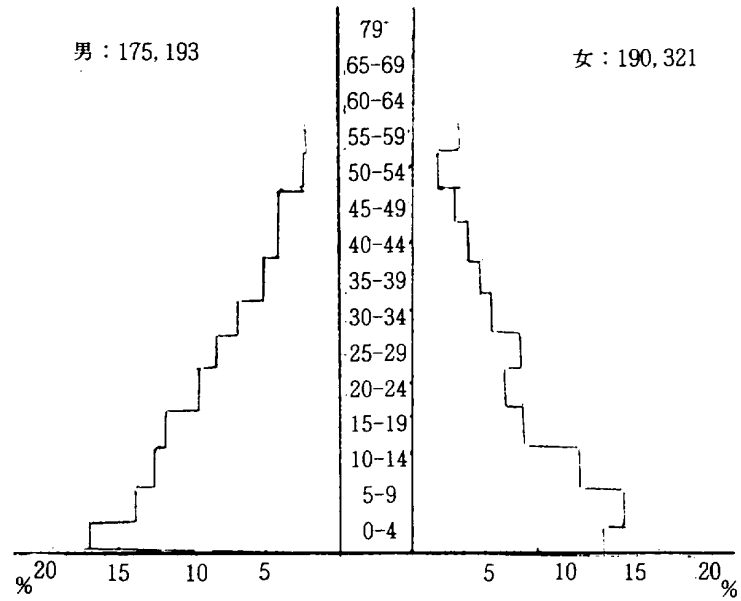
資料 : 고갑석, 최영희, "濟州道 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 第2回 1966. p. 97.

〈그림13〉 1966年 人口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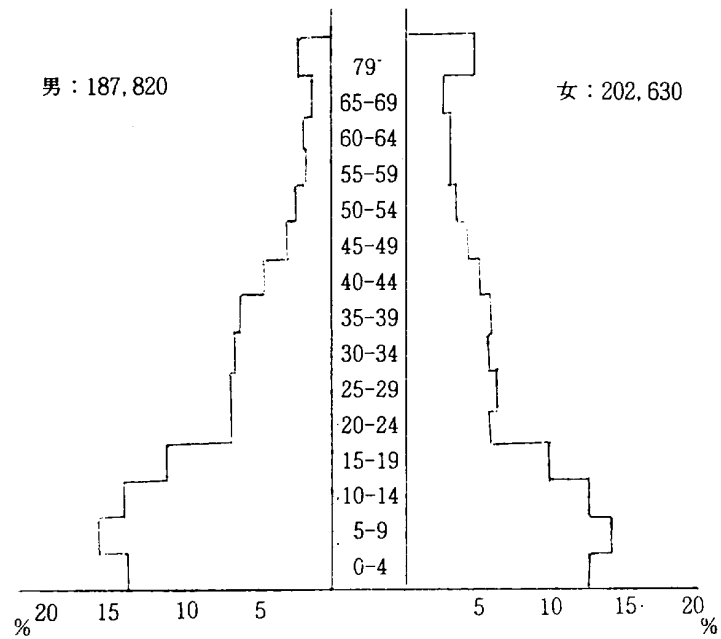
資料 :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보고. 1966.

〈그림14〉 1970年 人口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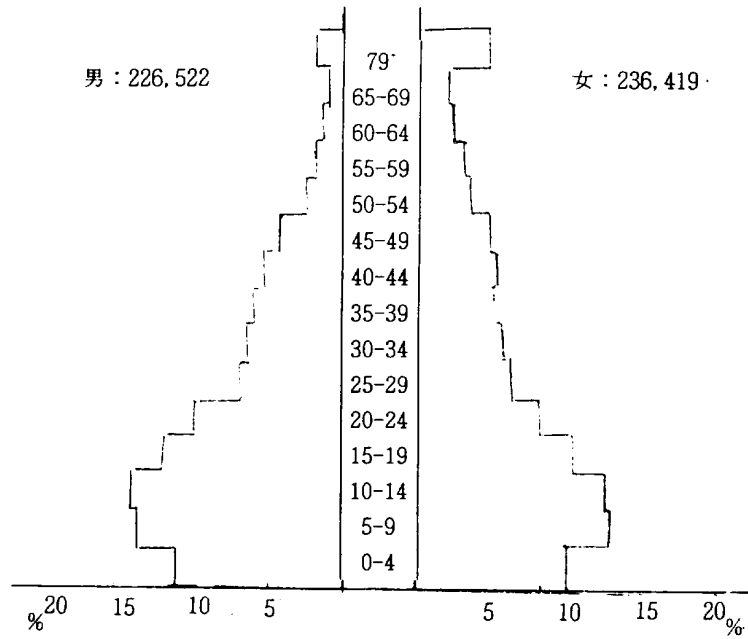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1971.

〈그림15〉 1973年 人口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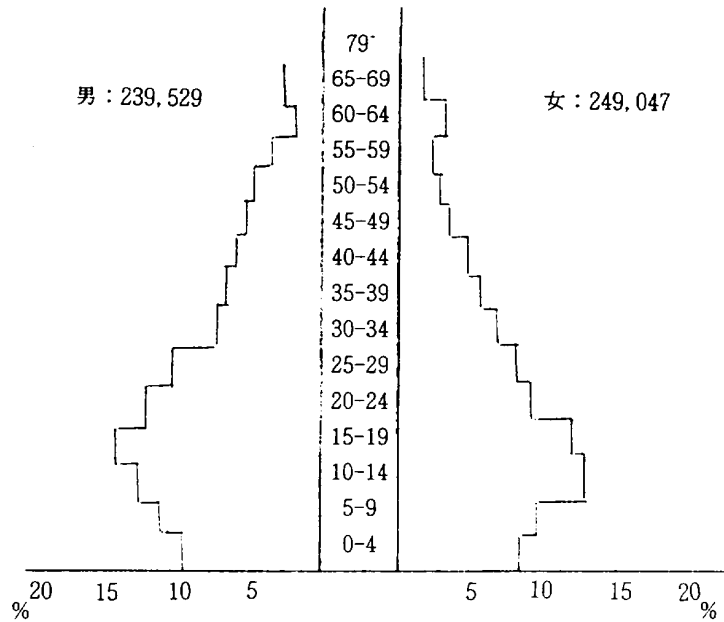


資料 :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 보고, 1973.

<그림16> 1980年 人口피라미드



<그림17> 1985年 人口 피라미드



른 지역에 비해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림11>에서 보면 1955年代 25~29세의 남자<sup>45)</sup> 인구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20~24세에서 남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군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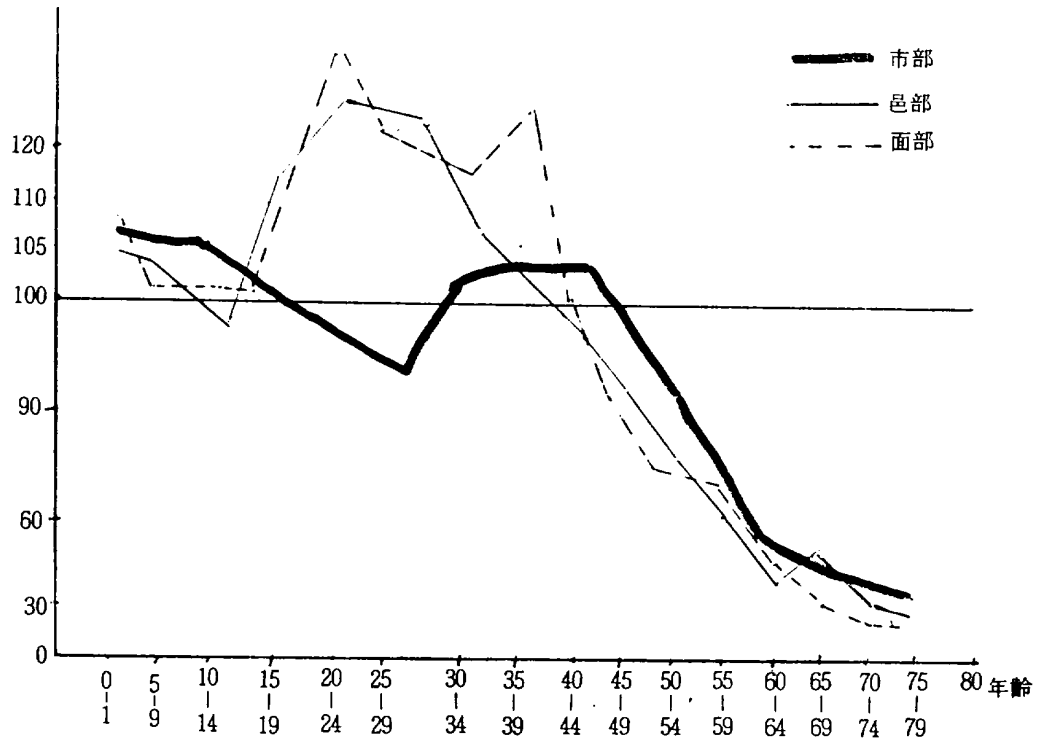
<그림12>에서 보면 1960年代에 들어와서 人口 增加率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性比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濟州道가 本格的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자 타지방으로 빠져나갔던 남자 人口 數가 억제되고 타지방의 남자 노동 인구를 濟州道가 흡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별 구조를 연령과 결부시켜 보면 出生時에는 타지방과 마찬가지로 여자 100에 대하여 남자가 102~106정도를 나타내다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세에서 백중지세 내지 남자가 약간 많다가 30세 이상이 되면 거의 대부분 여자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1966年으로 옮겨짐에 따라 濟州道의 人口는 육지와 비교할 때, 총인구면에서 女子 人口의 초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1955년에는 20~29세의 청장년 남자 인가와 60세 이상의 노년 남자 인구의 영향에 의하여 총인구 면에서 男子 過多現象을 보였으나 1960年이나, 1966년에는 이 연령층의 영향은 해소되고 濟州道 특유인 女超現象으로 바뀌지게 된다.

1970年에 와서 人口 피라미드는 男性 出生兒 比率이 높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濟州道 관광 시설과 관광 발전등으로 이에 필요한 젊은 여성 노동력이 필요 함으로 인해 人口 피라미드에서 20~29세의 女性 人口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1973年 人口 피라미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젊은 女性 人口는 그림<18>에서와 같이 관광 시설이 많은 市部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발달에 의한 女性 人口의 흡입에도 불구하고 濟州道의 性比는 表<8>에서와 같이 점점 10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과거에 비대해져 있던 女性 人口가 60세 이상의 年齡에 도달되어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出生率에 있어 男性이 많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市部보다 邑面部에 그림<18>에서와 같이

45) 6·25 동란과 4·3사건에 희생된 연령층은 구체적으로 전국의 평균치 보다 10세가 낮은 초기 생산 연령층인 14~24세 사이가 되고 있음.

〈그림18〉 1985年度 市邑面別 性比



資料：濟州道 統計年報 1986.

〈表8〉 濟州道の 性比 變化

| 地域<br>年度 | 濟州道   | 濟州市  | 北濟州郡 | 南濟州郡  | 西歸浦市 |
|----------|-------|------|------|-------|------|
| 1955     | 108.1 | 85.6 | 80.7 | 148.0 | —    |
| 1960     | 87.6  | 91.9 | 84.3 | 88.1  | —    |
| 1966     | 90.9  | 95.6 | 86.9 | 91.4  | —    |
| 1970     | 92.0  | 97.2 | 86.8 | 92.6  | —    |
| 1975     | 94.1  | 96.9 | 89.4 | 95.1  | —    |
| 1980     | 95.9  | 98.9 | 91.7 | 96.2  | —    |
| 1985     | 96.5  | 97.1 | 94.2 | 96.7  | 98   |

資料：濟州道 統計年度 各年度

40세 以上 人口가 많이 차지 함으로서 邑面의 女性 人口 감소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된다.〈表8참조〉

둘째 濟州道 산업별 人口構成은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라 女性 人口가 크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女性 人口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한정되고, 운수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에 많은 남성 人口가 요구 됨으로 인하여 〈表9〉에서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자수는 女性보다 男性 人口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세째, 濟州道는 바다라는 이동상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 女性들의 장거리 이동은 크게 감소되므로 인하여 市道間 轉入 人口의 性比는 1983年 서울(105.8), 부산(112.3), 대구(102.2), 인천(107.3), 경기(106.7), 강원(115.7), 충북(112), 충남(112.5), 전북(116.7), 전남(123.4), 경북(116.4), 경남(119.8)에 비교하여 가장 높은 129.5를 나타내어<sup>46)</sup> 남성 위주의 전입 인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表9〉 男女 취업자의 산업부문별 구성

(단위: 명 %)

| 性別<br>年度<br>직업             | 남 자  |      |      | 여 자  |      |      |
|----------------------------|------|------|------|------|------|------|
|                            | 1970 | 1980 | 1985 | 1970 | 1980 | 1985 |
| 농 · 어 · 업                  | 61.1 | 52.2 | 47.5 | 83.5 | 74.1 | 65.8 |
| 광 공 업                      | 6.9  | 6.4  | 4.9  | 2.4  | 3.2  | 2.2  |
| 사 회 간 접 자 본<br>및 기 타 서 비 스 | 32   | 41.4 | 47.6 | 14.1 | 22.7 | 32.0 |

資料: 김진영, “제주지역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8집 2988, p.170.

#### 나) 年齡別 人口構成의 變化

年齡別 人口構成을 살펴보기 위해서 年齡을 0~14세(少年 人口), 15~59세(청장

46) 李喜演, 前掲書, p.445.

년 인구), 60세 이상(노년 인구)<sup>47)</sup>으로 三區分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인 人口 피라미드에 의하면 濟州道の 少年 人口는 1966~1973년까지는 41% 이상의 높은 구성비를 지속 시키고 있지만 그 以前에는 4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濟州道の 出生率이 1955年 까지는 비교적 낮지만, 1950年代 후반부터 계속 高出生率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그림17〉에서와 같이 1980年の 少年 人口 比率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 要因이 作用한 것으로 보이는데, 1970年代 初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出生率의 영향이 첫째이고, 出生率이 높았던 1960年代 初의 世代가 靑壯年層으로 전이된 것이 둘째 요인이다. 앞으로 出生率이 특별히 上昇하지 않는한 濟州道の 少年人口 構成比는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청장년층 人口의 構成 比率을 正態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少年 人口의 構成比率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대체로 少年 人口의 構成 比率이 增大되면 청장년 人口의 構成 比率은 감소하고, 소년 人口의 감소 비율이 감소되면, 反對로 靑壯年層의 比率이 增大된다. 이런 경향성으로 濟州道の 청장년층 構成 比率을 살펴보면 1970년까지 낮아지다가 1973년부터 높아지는 現象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년 人口의 구성 비율은 出生率의 變動과 청장년층으로의 人口轉移에 의해서 決定되기 때문에 動態적으로 보면 청장년층의 構成 比率은 소년 人口층으로부터 轉移되는 人口 集團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75년에 全國의 靑壯年層 人口 比率이 1970年보다 3.8%가 높은 56.3%로 갑자기 높아지는 現象이나 1980년에 濟州道에 청장년층 構成 比率이 갑자기 높아지는 現象은 出生率 低下로 인한 少年 人口의 相對的 減少와 出生率이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世代가 大量으로 靑壯年層에 編入된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는 特徵은 濟州道の 靑壯年層 構成 比率은 全國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sup>48)</sup> 이것은 결국 濟州道 靑壯年層 人口의 결손이 매우 컸다는 것을

47) 經濟活動年齡을 우리나라는 1974年 이전까지 15~60세 까지로 잡았으나 1974年 8月부터는 國際慣例에 따라 15~64세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分析의 편의를 위하여 60세 以上을 노년인구로 간주한다.

48) 李昌基, 前掲書, p. 36.

증명한다.

총 인구중 60세 이상의 老人이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全國의 경우는 5.5~6% 水準인데 비해 濟州道는 7~9.3%로 60세 이상의 老人이 전체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10% 미만으로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1966年 以後 全國의 노년 인구 構成 比率은 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점차 增加하고 있는데 비해 濟州道의 老年 人口는 少年 人口의 감소에 관계없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1960年 以前の 낮은 出生率과 청장년층 인구의 심한 결손으로 濟州道의 老年 人口가 非正常的으로 肥大해져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 2. 産業別 人口構成

경제 활동은 크게 세부분(sector)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농업, 수산업, 임업등의 1차산업 부문과 광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 부문, 그리고 서비스업과 판매업, 개인 기업등의 3차산업 부분등으로 구분된다. '産業別 人口 構成'이란 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人口 가운데 1차, 2차, 3차산업에 종사하는 人口의 比를 말한다. 産業別 人口 構成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1차산업이 10% 내외인 반면에 2차산업이 30%, 3차산업이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 産業別 人口 構成의 比率은 1차산업이 70% 내외 2차산업 10%, 3차산업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sup>49)</sup> 이와같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개발도상 국가의 경우, 産業別 人口 構成의 比率은 1차산업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의 2차산업 끝으로 3차산업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상공업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3차산업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의 2차산업, 그리고 1차산업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할 수록 産業 構成은 변하게 되고 고도화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

49) 權赫在, 前掲書, p. 420.

濟州道 地域의 産業 構成은 3차, 1차, 2차 産業의 순으로 1차산업 비중이 극히 하락하고, 광공업 부분이 점증하는 한국 사회의 産業構成과는 달리 상이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3차산업이 비대하고 2차산업이 극히 취약한 것은 1960年代以後의 국가 주도의 관광 개발 전략과 자연적·환경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表1>에서 보듯이 濟州 社會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취업자 수에 있어 가장 높아 여전히 사회 성원들의 경제 활동의 주된 영역이다. 농업의 취업 인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은 상업적 농업이 지역적 독점 생산을 통한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농업 자체가 그만큼 매력있는 유인적 요인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적 요인은 육지부나 세계 상품 시장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감소하게 되어 다른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광공업 부분은 산업 입지 조건의 불비와 관광 개발의 계속적 추진에 따른 억제 효과 때문에 노동력을 흡수할 노동 시장이 극히 취약하고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은 대

<表10> 濟州地域 産業別 人口變動

(단위 : 인, %)

| 구분 \ 년도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
|---------|---------|---------|---------|---------|---------|---------|------------|
|         |         |         |         |         |         | 濟 州     | 全 國        |
| 총 취업자   | 123,925 | 111,950 | 135,118 | 183,925 | 188,028 | 190,214 | 14,970,000 |
| 1 차 산 업 | 88.1    | 78.6    | 72.2    | 81.3    | 68.6    | 60.1    | 24.9       |
| 2 차 산 업 | 2.1     | 5.3     | 4.7     | 3.5     | 5.3     | 3.4     | 24.5       |
| 3 차 산 업 | 9.8     | 16.1    | 23.1    | 15.9    | 26.1    | 36.4    | 50.6       |
| 취업률     |         | 96.5%   |         | 99.8    | 99.8    | 98.2    | 96         |

資料 : 「인구주택 국세조사 보고」 1960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 보고」 1966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 보고」 1970 경제기획원

「제주통계 년보」 1976 제주도

「제주경제현황」 1989 제주상공회의소

폭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취업자의 증가는 관광 분야 산업 기반의 확충으로 상대적으로 인구를 구성하는 전통적 농업 부문 노동력의 유입에 따른 퇴적과 신규 노동력이 유입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1985년 취업자 構成을 性別로 보면 産業別 순으로 각각 남자는 47.5%, 4.9%, 47.6%의 構成을 보이는 반면, 여자는 65.8%, 2.2%, 32%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남자의 경우 3차산업의 구성비가 훨씬 높다. 남자의 비농 취업자는 1970년에 38.9%이던 것이 1985년에는 52.5%로 변화하여 절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16.5%에서 34.4%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2/3가량이 농업 부문에 잔류하고 있다. 비농 부문 취업자중 전통적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취업자의 절반 이상에 이르러 이들 업종에 여성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50)</sup> 이들중 상당 부분이 비공식 부문 종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濟州道 취업률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실업률 4~5%를 감안할 때, 濟州道는 1~2%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濟州道の 1차산업 인구 중에는 상당수의 위장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51)</sup>

이와같이 濟州道는 2차산업의 빈약함으로서 道外 人口를 흡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1980년대 初 濟州道는 全國 人口 增加率 보다 뒤떨어지고 있어 人口 成長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濟州道는 이러한 産業構成으로 인해 실업자가 많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濟州道 농수산물과 관련한 무공해 가공 공장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0) 김진영, “제주지역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8집, 1988, pp. 168~169.

51) 夫鍾哲, “濟州地域 經濟開發 戰略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8집, 1988, p. 195.

## VI. 要約 및 結論

濟州道 人口 成長을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55~1960年 人口增加率は -2.4%을 나타내어 人口減少를 경험하였지만, 1960年代에는 全國的으로 人口增加率が 低下되어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高成長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80年代에 와서는 전국 수준보다 낮은 人口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어, 濟州道 人口成長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② 濟州道の 人口分布와 密度는 1960년에 全道에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비슷하게 分布했으나 時間의 경과됨에 따라 濟州市와 西歸市 地域을 向해 조밀화 되어지고 있으나, 全國의 都市人口率과 비교하면 1969年 以前에는 濟州道가 全國의 都市人口率을 상회했으나, 그 以後 부터는 都外 人口를 흡수할 여건이없어 全國 都市人口率보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③ 濟州道の 自然的增加率は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社會的增加率は 1970年代 後半 以後 감소율이 극대에 달하였으나 1980年代 초반부터는 감소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濟州道 現在 自然的 増加에 의한 人口 成長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④ 性別 人口構成에 있어서 濟州道는 女超現象은 여전하나 해마다 性比가 점점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年齡別 人口構成에 있어서 濟州道는 1970年 以後 少年人口와 老年人口의 구성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靑壯年層 人口構成 比率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⑤ 濟州 地域은 全國과 비교할 때 농업 부분의 취업 인구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광공업 부분은 매우 취약하여 濟州道 노동 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다. 이는 濟州 地域의 산업 구성의 상업적 농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편성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직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여전히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관련된 직업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姜相培, “濟州道 地域別 人口增減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Ⅱ).” 「제주교대 論文集」 제4집, 1984.
- , “濟州道內 人口에 대한 研究.” 「제주교대 論文集」, 제5집, 1975.
- , “濟州市 人口에 대한 研究” 「제주교대 論文集」, 제5집, 1975.
- , “濟州道 人口의 性比 變化에 대한 研究”, 「제주교대 論文集」, 제12집 1982.
- 姜錫午, 「新韓國地理」, 서울: 대학교재출판사, 1985.
-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지역경제현황” 한국장기 신용은행, 1984.
- 高甲錫·崔英姬, “濟州道 人口의 特質.” 人口問題論集 제2회, 1966.
- 權赫在, 「韓國地理」, 서울: 法文社, 1987.
- 全洙日, “西歸浦市 人口成長에 관한 考察”, 「濟大 社會科教育」第5輯, 濟州大學校 社會教育科, 1987.
- 김진영, “제주지역 노동 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論文集 제28집
- 金宗昊, “제주지역 경제의 현황과 과제” 석사학위논문집, 제주대학, 교육대학원, 1988.
- 남제주군청, 「南濟州郡 統計年報」各年度
- 남제주군청 문화공보실 “인구와 취락” 「南濟州郡 30年史」1981
- 羅貞姬, “濟州道 都市化에 관한 考察” 「濟大 社會科教育」第4輯, 濟州大學校 社會教育科, 1986.
- 夫鍾哲, “濟州地域 經濟 開發 戰略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8집, 1988.
- 북제주군, 「統計年報」. 各年度.
- 북제주군 문화공보실, “인구와 취락” 「北濟州郡 30年史」, 1986.

西歸浦市「統計年報」, 各年度.

宋成大, “濟州市 人口成長에 대한 考察”, 제주대학교 論文集, 제20집, 1985.

石宙明, 「제주도의 생명 조사서, 제주도 인구론」, 서울신문사 출판국, 1949.

孫禎睦, 대구시 전입 인구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1976.

申幸澈, “제일제주교포 그 소수 집단으로서의 성격과 階層構造” 「耽羅文化」創刊號,  
1982.

李喜演, 「人口 地理學」, 서울: 法文社.

李昌基, “濟州道の 人口 成長”, 탐라문화 제1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洪慶姬, “韓國의 都市化—일정시대—”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6집 1962.

———, “韓國의 都市化—해방후 남한의 都市化”,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7집  
1964.

洪慶姬, “韓國의 都市化—人口面으로 본 1960~1970년간의 都市化”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17집 1973.

———, 「都市 地理學」, 법문사, 1984.

제주상공회의소 「제주 경제 현황」 1989.

제주도 「濟州道 統計年報」 各年度

제주시 「統計年報」, 各年度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濟州道志(上)」, 濟州道, 1982.

제주시 문화공보실, “人口와 취락” 「濟州市 30年史」, 1985.

李昌基, “제주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人口保健論集」, 1982.

경제기획원, 「인구 센서스 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6.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 「인구 센서스 보고」

조사통계국, 1980, 1986.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4.

———, 「한국의 사회이동」, 1987.

Summary

A Study on the Growth of Population of Cheju Island

Juang Soo-chual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Sung-Dae*

① The Population of Cheju Island toward Cheju-City and Sogwipo-City has been indicative of Urbanization, but, asit Compared with the rate of national urban Population, cheju Island was advance of the rate of urban population before 1969's, after, since it has been on the decrease more than that of all the national Population

② The rate of national increase in population in cheju Island has been on the decrease slowly, on the contrary, that of social increase in population in Cheju Island was on the ut most decrease from the mid-1970's on. But that of decrease was de creasing more and more from the eary 1980's

③ On the whole Cheju Island population men has increased in number in proporion to women from the component ratio of Population to women from the Component ratio of population, and so, sex-ratio will be quite within the bounds of possibility of equality

---

④ Cheju Island labor market is limited in size and growth in that the primary industry is too big and secondary is too small the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ial sector shows 55.7% in the primary, 3.7% in the secondary and 40.6% in the tertiary, As the agricultural sector still has a strong pull-factor of labor forces, the half and over among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is working at agricultural sector